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단체보험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최근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보험 감독 선진화 추진 추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유사보험 영업활동 및 감독제도 동향
통계청, 2002년 생명표 작성결과 발표
금감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운영

◆ 해외보험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중국·인도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단체보험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최근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0
보험산업 개관	20
보험산업 환경	24
1. 해외 경제	24
2. 국내 경제	26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8
보험지표동향	30
1. 보험산업 총괄	30
2. 생명보험	32
3. 손해보험	44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55
1. 보험 감독 선진화 추진 추이	55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59
3. 유사보험 영업활동 및 감독제도 동향	61
4. 통계청, 2002년 생명표 작성결과 발표	64
5. 금감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운영	67
해외보험동향	69
1. 미국 동향	69
2. EU 동향	71
3. 일본 동향	81
4. 중국·인도 동향	88
통계표	91

테 마 진 단

◆ 〰단체보험시장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진익 선임연구원

1. 국내 단체보험시장의 현황

단체보험시장은 외환위기 전후 30%대¹⁾를 점유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11%대까지 떨어졌음.

- 단체보험은 하나의 계약으로 단체를 이루는 다수의 구성원에게 보장혜택을 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으로 나뉠 수 있음.
 - 일반단체보험은 단체정기보험과 재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생사혼합보험 형태의 저축성 보험 등이 해당되며 퇴직보험은 사적연금제인 기업연금의 전신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 종업원의 퇴직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기도 했던 단체보험²⁾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최근 관련시장동향을 분석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에서 포화현상이 나타나고 생사혼합, 단체보험 등의 종목에서는 축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성장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시장개척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따라 기업의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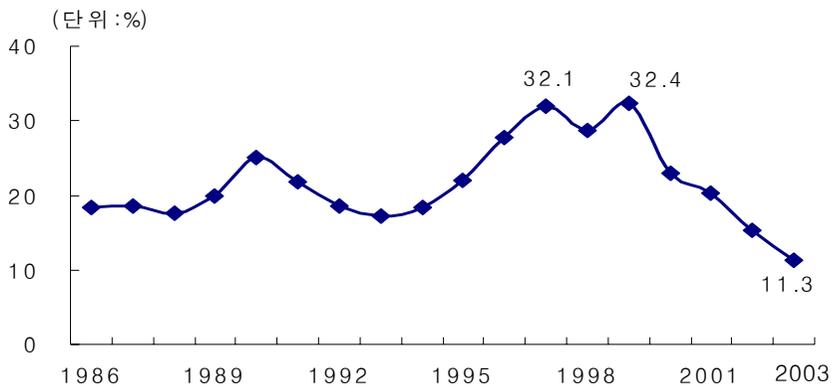
1) 수입보험료기준

2) 여기서 단체보험은 일반계정의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을 포함하며, 손해보험의 퇴직보험은 포함시키지 않음.

있는 시점에서 신성장의 기회로서 단체보험을 재조명하고 발전과제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1960년대 생명보험시장은 단체보험이 법적(국민저축조합법, 1962년), 정책적 요인(임직원 중심 영업)으로 급속히 성장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개인보험이 성장을 주도함.
- 1977년 퇴직금의 사외적립과 보험료의 손비인정을 골자로 하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의 도입으로 단체보험시장이 확대되어 퇴직보험의 비중이 1980년에는 20% 내외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는 30%내외까지 증가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2000년 10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이 판매중지되고 퇴직보험이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2000.3)에도 신탁형태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연봉제의 확산과 유사보험의 확대에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FY2003 11.3%까지 비중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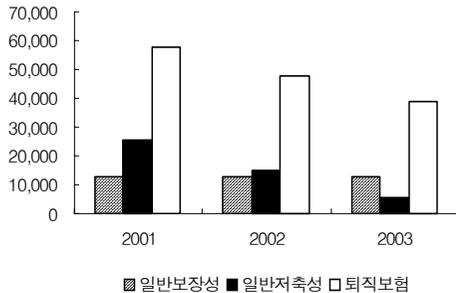
<그림 1> 단체보험의 보험료비중 추이



-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저축성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지속적 축소되고 있음.
- 2004년 하반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역마진 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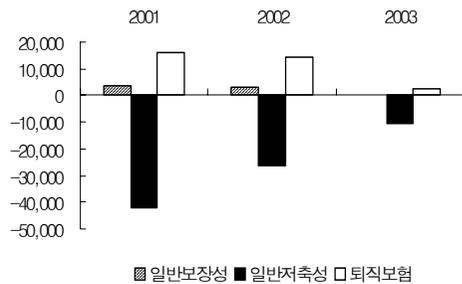
<그림 2>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추이

(단위 : 억원)



<그림 3> 단체보험 수지차추이

(단위 : 억원)



- 2004년 2/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하였으나, 장기간의 감소세를 고려하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2. 단체보험시장 비교 : 미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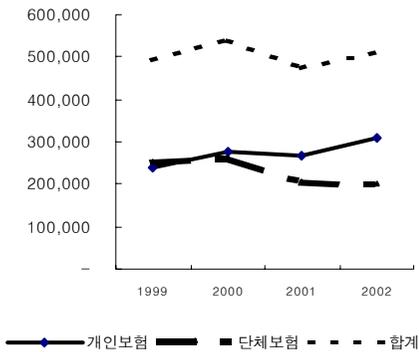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단체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발전시켜 왔으며, 기업복지차원의 보상수단으로서 근로자의 후생에 기여를 해음.

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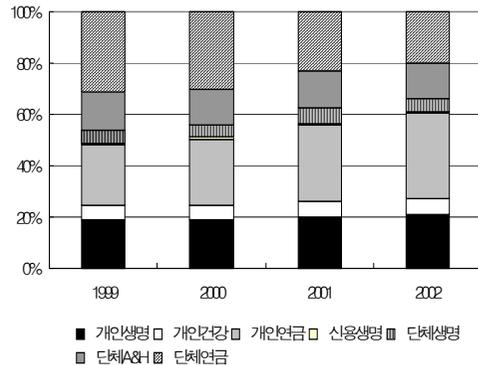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건강보험체계가 없는 미국의 단체보험시장은 기업대상의 복지후생형 상품인 단체정기보험과 종업원대상으로 기초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연금 및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해왔음.
- 미국의 단체보험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체제를 보완하는 단체정기보험위주로 시작하여 기업연금과 건강보험이 추가되면서 활성화되어 왔음.
 - 2002년 현재 미국보험시장의 규모는 510조 7,200억 달러이며 그중 개인보험이 61.0%, 그리고 단체보험이 39.0%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 단체보험의 상품구성은 단체연금(19.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단체A&H(3)가 14.0%, 단체생명이 5.3% 차지해 연금과 건강보험상품의 비중이 큼.
- 반면, 개인보험상품은 개인연금이 33.4%, 개인생명 21.2%, 개인건강 5.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들이 개인보다는 단체A&H에 의존하는 비중이 큼을 의미함.

<그림 4> 미국 수입보험료추이
(단위 : 십억달러)



<그림 5> 미국 보험종목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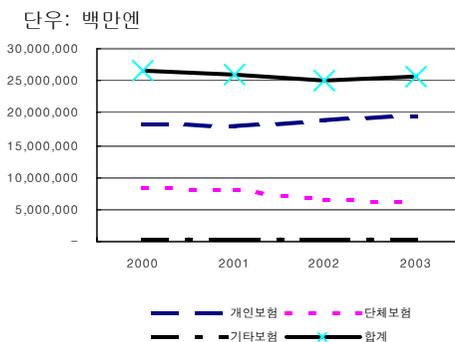
- 미국은 단체보험을 통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비상승에 따른 단체보험료 증가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적어도 1개 이상의 단체보험을 제공, 대부분은 7가지 이상의 보험급부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조차도 4가지 이상의 보험급부를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가입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의료비, 생명, 치과, 재해사망과 고도장해, 장기장해, 그리고 단기장해 등 제공급부의 구성비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는데, 최근 안과관련 급부가 추가되는 추세임.

3) A&H : Accident &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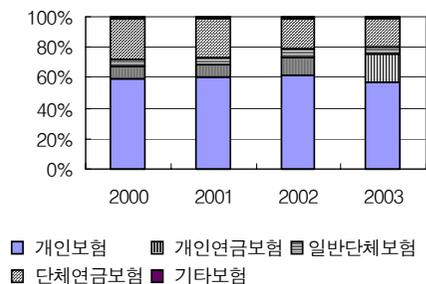
나. 일본

- 일본의 단체보험은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기업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이후 후생연금기금보험이 추가되면서 발달하기 시작, 이후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니즈를 반영하면서 단체건강보험 등이 활성화됨.
-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사적연금 및 사적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었음.
 - 2003년 일본의 보험시장규모는 25조 6,732억엔으로 전년대비 1.9% 성장했으며, 이중 개인보험은 4.1% 성장한 반면 단체보험은 4.5% 감소했음.
- 일본은 2003년 현재 전체 수입보험료 중 단체연금보험이 18.8%, 일반단체보험이 5.0%로 전체단체보험 중 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일반단체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일반단체보험은 일부 종목의 급성장세에 힘입어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신계약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단체정기(231.2%), 종합복지 단체정기(91.3%), 단체신용(20.6%), 소비자신용단체(13.8%) 등의 종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6> 일본 수입보험료추이



<그림 7> 일본 보험종목구성



- 일반단체보험이 전체 단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9% → 2001년 17.0% → 2002년 20.4% → 2003년 2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어, 기업복지의 보장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o 단체연금보험은 최근 도입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의 감소로 수입보험료에서의 비중도 2003년에는 18.8%로 감소하였음.
-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적격퇴직연금 및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은 각각 8조 6,159억엔, 6조 7,895억엔으로 모두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부터 판매하고 있는 확정급부형 기업연금 자산은 1조 777억 엔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3. 국내 단체보험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이라는 역할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단체보험 수요를 자극하고 충족시킬 다양한 상품의 부족과 언더라이팅기능 등이 낙후됨.

- 선진국의 단체보험시장이 사회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시장은 초장기를 제외하곤 개인보험시장의 부수적인 시장으로서 적절한 기업복지의 수단으로 발전해 오지 못했음.
- o 단체보험시장의 활성화는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기업 문화적 인식차이에 의한 제도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들의 단체보험시장에 대한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마케팅, 상품, 언더라이팅 등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o 수요측면
 - 우리나라의 단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소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퇴직보험에 편중된 구조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내에서 사적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기업경기에 따라 수요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 공급측면

- **판매관행** : 그동안 일반단체와 퇴직보험 등은 기업의 근로자측면의 니즈에 부응한 판매가 아닌 기업의 금융조달과 관리의 초점에 맞추어 상품개발과 그에 대한 판매관행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사회복지 안정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
- **상품종류** : 개인보험이 종신보험을 넘어 CI보험 등 건강관련 보장성 상품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데 반해, 단체보험상품은 종류가 많지 않아 일반 근로자들의 생존보장 니즈를 충분히 소화하는 데 한계를 가짐.
 - 또한 소수의 실손보장 건강보험이 개발 되었으나, 선택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개 산업재해관련 특약으로 보장되는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기업연금상품이라 할 수 있는 퇴직보험도 관련제도 미비로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언더라이팅(계약심사)** : 단체보험종목의 위험관리는 언더라이팅 기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단체보험의 단체성을 반영하기보다는 구성원의 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계약심사가 주류를 이룸.
 - 그 결과 단체보험 판매 경험에 비해 경험율의 축적 부재와 이의 활용 부족 문제가 발생함.

4. 대응방안

일반단체보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보험의 추세에 버금가는 상품다양성 구비와 계약심사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적 인프라를 확보, 신뢰성 제고가 필요함.

- 단체보험시장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 특히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것과 단체성에 의한 역선택의 방지는 개인보험시장의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매력적인 장점임.

-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저축성 위주의 단체보험시장운영으로 보장성 단체보험시장이 등한시되어 왔으며, 기업들의 관점도 퇴직보험을 포함한 저축성에 맞추어져 왔음.
- 최근에는 다중의 보장급부를 조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식의 기업복지제도가 정부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기업들도 종업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일반단체시장의 전망을 밝게 함.
- 또한 전통적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퇴직보험시장을 대체하여 본격적인 기업연금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2005년 12월로 정해짐에 따라 시장선점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임.

가. 일반단체보험 활성화

□ 단체보험의 판매특성이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보험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바, 그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구분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상품의 다양화

- 기본적인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임원대상의 CI보험 개발이든지 다양한 계층별 상품개발 및 판매가 부진한 생존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건강보험관련 상품(실손의료보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각기업체에서 상조회의 부조금 형태로 제공되는 건강보험수요를 단체보험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득보상보험(DI)보험을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단체보험에 적합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통한 충분한 통계분석이 필요하며, 차차 계층별 다양화가 필요할 것임.

○ 언더라이팅 기능의 강화

-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상품의 기초율과 대상이 다른 만큼 위험률의 양상이 다르므로 상품은 다양화하되 상품구조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1년 만기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그 동안의 단체보험관리를 통한 경험률을 적극 반영한 단체별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육성도 필요함.

나. 단체연금보험 활성화 방안

□ 오랜 기간의 진통을 겪은 끝에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단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등 타금융권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됨.

○ 언더라이팅 리스크관리 시스템화

-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기업별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에 대비해서는 ① 연금제도 설계중심의 서비스 개발 ② 연금부채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 구축관련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대비해서는 ① 자산관리업무 중심보다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비스개발 ② 연금운용의 성과 측정에 관련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함.

○ 연금 ALM시스템의 구축

- 금리위험 등 연금기금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도입·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됨.

- 연금 ALM체계 즉 시뮬레이션 연금 ALM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며, 연금ALM체계구축에 의한 효율적인 자산배분과 재정계획수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연금전문인력의 확충

- 자산운용능력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연금전문인력의 확보는 보험회사의 인력인프라 구성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연금상품에 특화된 계리사 중심의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금상품개발 및 ALM적 자산운용에 전문적 능력 배양이 필요함.

☐ 최근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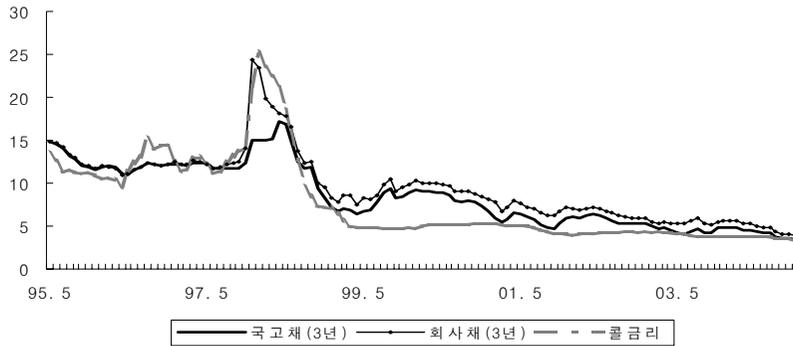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가. 최근 금리 하락세의 추이

금리하락의 장기화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하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영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 금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 금리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004년에 들어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진입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소진되는 등 초저금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콜금리의 경우 외환위기와 함께 20%대로 상승한 이후 2000년과 2002년의 소폭 금리 인상조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이어갔으며 2004년 11월 금통위의 콜금리 운용목표 조정으로 3.25% 수준까지 하락함.
- 외환위기와 함께 회사채(3년)의 경우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에 걸쳐 20%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998년말에는 한자리수 금리를 기록함.
 - 1999년 중 10% 수준까지 반등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4년 하반기에는 3%대에 진입함.
- 국고채(3년)의 경우는 회사채금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 0.5%p 수준의 금리차(spread)를 유지하며 동행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을 조정한 실질금리의 경우 2004년 7월~10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2004년 8월 이후에는 콜금리와의 금리차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임.

<그림 1> 주요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시장에 상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경기 부양의 측면과 해외 금리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롭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역마진 구조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초저금리 현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갖을 필요성이 있을 것임.

나.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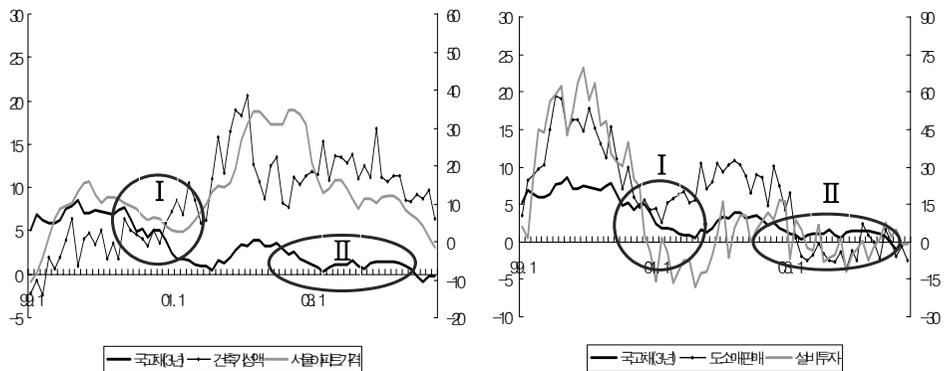
최근의 저금리 현상 심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효과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험사의 자산운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2000년 하반기에 진행된 금리 하락은 건설과 소비를 부양한 효과가 인정되나 2002년 하반기 이후의 금리 하락은 경기 부양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설비투자는 금리와 상관없이 장기 불황 상태를 지속함.
- 최근 국고채(3년) 실질금리⁴⁾의 추이를 보면 대표적으로 두 번의 하락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000년 하반기와 2001년 8월에 걸친 기간이며, 두 번째가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0% 전후의 수준을 이어오고 있는 기간임.

- 소비는 첫 번째 금리 하락 이후 크게 반등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나 두 번째 금리하락기 이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락하는 등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도소매판매액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면 첫 번째 금리 하락과 더불어 도소매판매액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2001년 2월 2.6%에서 9월에는 10%를 상회함.
 - 두 번째 금리 하락 이후에는 2003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 하락의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움.
- 설비투자는 두 번의 금리 하락기 모두에서 별다른 회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기 불황국면을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설비투자추계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면 2000년 12월 감소세를 보인 이후 일시적인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초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2> 실질금리와 내수 관련 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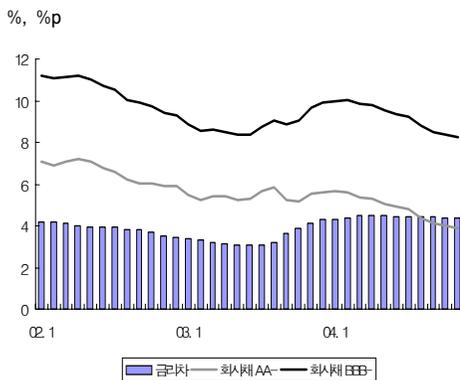


주 : 금리외의 변수 전년동월비%, 금리는 왼쪽축 기준, 기타변수들은 오른쪽축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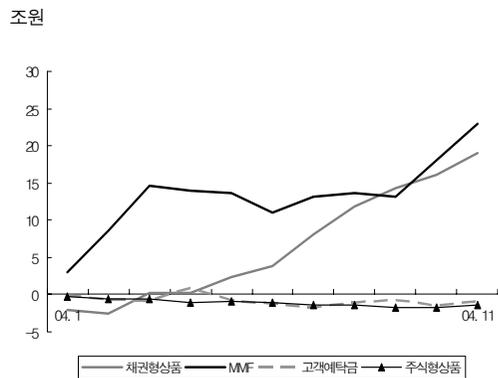
4) 실질금리는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음.

- 건축건설 기성액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첫 번째 금리 하락 이후 2001년 하반기 부터 부동산 경기의 상승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4년 하반기 부터는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
-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경기와 함께 건설경기를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후 건설 경기는 금리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최근의 금리 인하는 건설 경기 부양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에는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채권형, 단기성 상품에 대한 과잉 수요를 유발하면서 금리의 하락압력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함.
- 금리 하락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등 자금 실제로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함.
- 장단기금리차는 2002년 중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03년 하반기 이후 회사채 BBB-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AA-와의 차이가 4%p를 넘어서면서 최근에서 회사채 BBB- 금리가 회사채 AA-를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금리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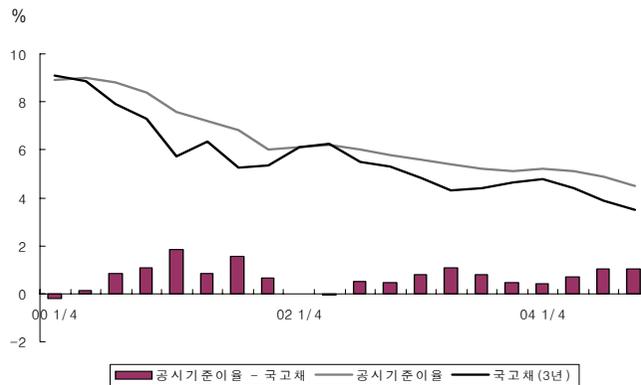
<그림 4> 주요 상품 순수신 누계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2004년 시중자금은 자본시장으로 가지 않고 단기성 자산과 채권형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채권 수요를 유발하여 금리 하락 압력이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시중자금 순수신 누계액을 보면 채권형 상품에는 연중 꾸준한 유입이 발생했으며 단기성 상품인 MMF에는 1/4분기와 4/4분기 중 큰 폭의 자금유입이 발생함.
 - 향후 금리 반전시 시중자금은 채권형 상품에서 역으로 급속히 유출될 수 있어 향후 잠재적인 금리 불안정 요인이 심화되고 있음.
- 금리 하락의 장기화로 보험사는 자산운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적절한 자산 운용 수익률 확보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금리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공시기준이율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함.

<그림 5> 최근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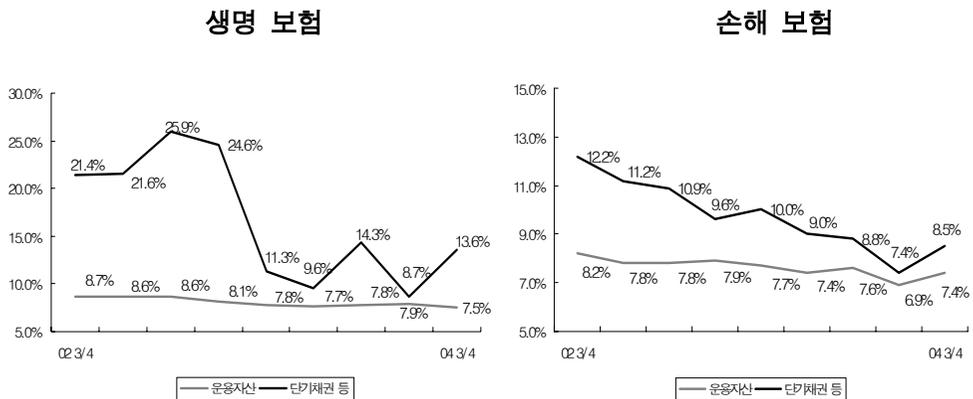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최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은 금리 하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처분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던 단기운용 채권

의 수익률도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단기로 운용하는 채권의 매각으로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익률도 하락하고 지속적인 매각으로 전체 자산에서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생명보험 단기운용 채권의 경우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서 1.8%로 감소하였으나, 단기운용채권의 비중이 매우 작아 전체 운용자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손해보험 단기운용 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4분기 15.3%에서 2004년 3/4분기에는 9.6%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운용자산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장기운용자산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단기운용자산의 수익률까지 악화되면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

<그림 6> 보험산업 운용자산 및 단기 운용 채권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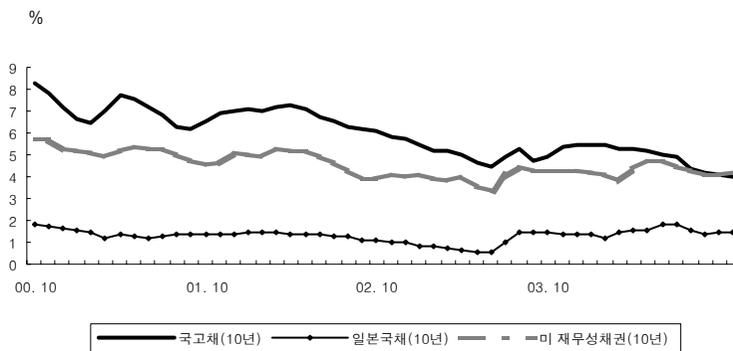
주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은 누계기준임.
 자료 : 보험개발원

다. 금리 수준의 해외 비교

미국, 일본 등 국제 금리와의 비교해도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이미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적인 인하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 미, 일의 장기채 명목 수익률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미국, 일본의 장기금리(10년)의 추이를 비교할 경우 모두 최근 꾸준한 하락세를 지속한 이후 2003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일본의 경우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우리나라의 국고채(10년)수익률은 소폭 상승후 하락세를 지속함.
-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 그 차이가 급속히 축소되면서 최근에는 미국 재무성채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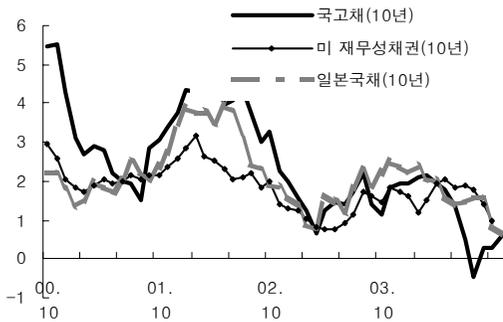
<그림 7> 한, 미, 일 장기채 수익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제금융센터

- 한, 미, 일의 장기채 실질 수익률⁵⁾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3년 상반기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우리나라 국고채(10년)의 시계열자료가 유용해진 2000년 10월이후 3국의 금리 추이를 볼 때 대략 1년반 주기의 등락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3개 기간으로 나누어 금리의 수준을 상호 비교해 보았음(<표 1>참조).
- 2000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미국 일본에 비해 약 1.0%p 가량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기간의 경우 미국의 실질금리와의 차이는 평균 0.62%p로 축소되었으나 일본과의 격차는 여전히 1.0%p를 상회하고 있음.
- 2003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일본보다는 0.14%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비교할 경우 0.42%p나 낮아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8> 한·미·일 실질금리 비교



<표 1> 한·미·일 실질금리 비교

		(기간평균 %)		
		2000. 10 ~2001. 08	2001. 09 ~2003. 03	2003. 04 ~2004. 11
한	국	3.13	3.22	1.34
미	국	1.92 (1.21)	2.60 (0.62)	1.76 (-0.42)
일	본	2.10 (1.03)	2.04 (1.18)	1.48 ^{주2)} (-0.14)

주 : 1) (·)은 한국금리 - 미, 일 금리,
2) 일본은 2003.4~2004.1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제금융센터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3년 상반기에 장기채의 실질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 사실이나, 2004년 하반기 우리나라의 장기

5) 한국의 실질금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장기채수익률도 해당 국가 전년 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용하여 실질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국고채의 실질 수익률은 이미 이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직전이었던 2003년 상반기와 최근의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임.
 - 미국의 2003년 상반기 재무부채권(10년)의 평균 실질수익률은 1.23%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0.93%로 나타나 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2004년 하반기(7~11월) 국고채(10년)의 평균수익률은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더욱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보다 낮은 실질 금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라. 시사점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현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금리의 상승 반전 요인도 불확실한 만큼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 해외금리 등 금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환경을 고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금리 외적인 요인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더불어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건설, 설비투자 등 내수 경기 관련 변수들은 반응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금리 인하로 이들 변수들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금리하락기 시중자금의 이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물부문으로 공급되기보다는 채권형 상품 등을 선호하면서 다시 채권 수요 증가와 금리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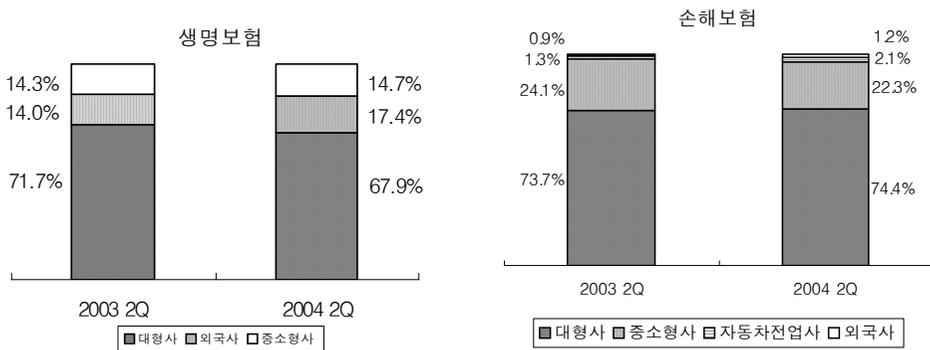
- 따라서 금융시장의 측면에서도 무리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장기채 실질 금리수준은 미국, 일본의 최근 장기채 실질 금리와 비교할 경우에도, 이들 국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도했던 2003년 상반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수준임.
-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있고 경기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압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채권시장에서는 여전히 채권에 대한 과수요로 국고채(3년)와 콜금리 사이의 금리차가 소진된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금리의 추가 하락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금리 상승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가 유일한 조건이 될 것이나 2005년 상반기 중에는 오히려 경기의 추가적인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경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사들은 초저금리 현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해외투자 확대, 자산 운용 능력 확충, 자산 운용 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채의 금리가 낮고 공급 물량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산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자산운용의 외주를 수익률과 소요비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형사들은 자산풀링(pooling)을 통해 단위당 자산운용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보험산업 개관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⁶⁾가 생존, 사망, 변액보험 등 대부분의 주요 종목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반면, 대형사는 크게 축소되었음.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는 자동차보험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은 확대하였음.

〈전체 시장점유율〉

-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는 단체보험 시장점유율만 소폭 증가하고, 개인보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함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전체 시장점유율은 3.8%p 감소한 67.9%를 차지함.
 - 외국사는 생사혼합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3.4%p 증가한 17.4%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함.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대형사, 자동차보험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 6) 외국사는 금감원 분류기준에 따라 외국사와 합작사로 정의하나, 동양생명의 경우 편의상 중소형사로 분류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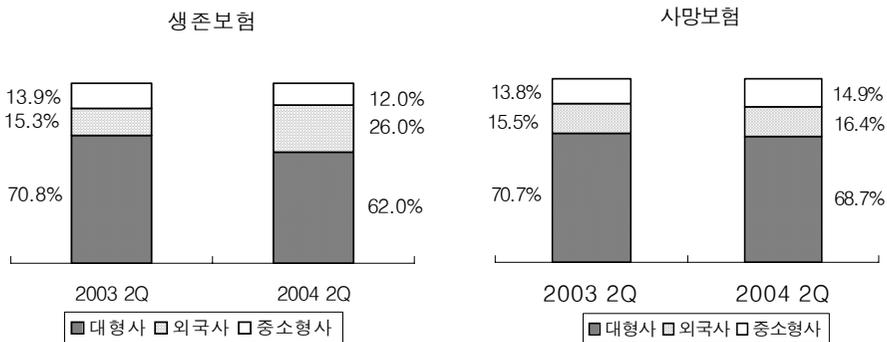
1.8%p 감소한 2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대형사와 자동차보험전업사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0.7%p와 0.8%p 증가하여 전체시장 점유율의 74.4%와 2.1%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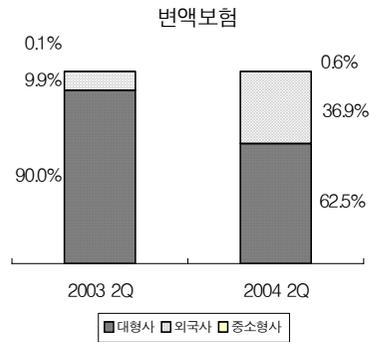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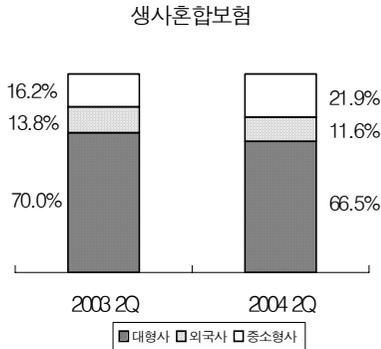
<생명보험산업 시장점유율: 대형사 위축과 외국사 대폭 확대>

□ 개인보험의 경우 외국사가 신성장축인 생존과 변액보험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보험에서도 비중을 증가시킨 반면, 대형사는 전종목에서 시장점유율이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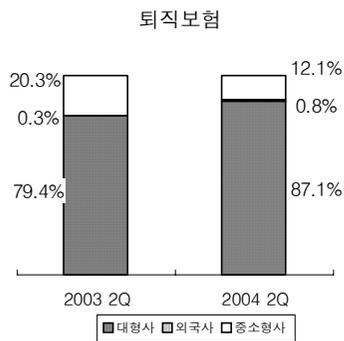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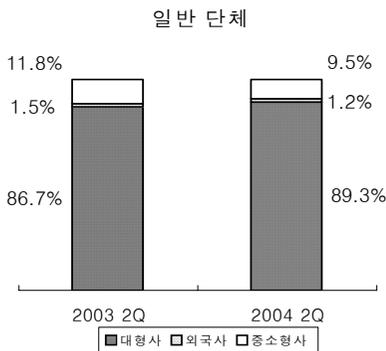
- 생존보험에서는 대형사(2.7%)와 중소형사(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와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한 반면 외국사(100.2%)는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형사 및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8.8%p와 1.9%p 감소한 반면 외국사는 10.7%p 증가함.
- 사망보험에서는 전년 동기에 비해 중소형사(22.0%)와 외국사(19.5%)가 크게 성장한 반면 대형사는 평균 성장률에 못 미침으로써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기 1.1%p와 0.9%p 증가했고 대형사는 2.0%p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에서는 외국사(-25.7%)와 대형사(-16.3%)가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중소형사(19.0%)는 오히려 큰 폭으로 성장함으로써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5.7%p 증가했고 외국사와 대형사는 각각 2.2%p, 3.5%p 감소함.



- 변액보험에서는 대형사(101.3%)의 큰 폭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3121.7%)와 외국사(981.6%)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7.5%p 감소한 62.5%가 되었고, 외국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27.0%p와 0.5%p 증가한 36.9%와 0.6%에 도달함.
- 이러한 결과는 외국사가 방카슈랑스와 같은 신채널을 통해 공격적인 판매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대형사는 내실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판단됨.
- 단체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의 시장 고수가 주목되며, 외국사의 퇴직보험시장에서의 뚜렷한 성장을 제외하면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0.1%p와 5.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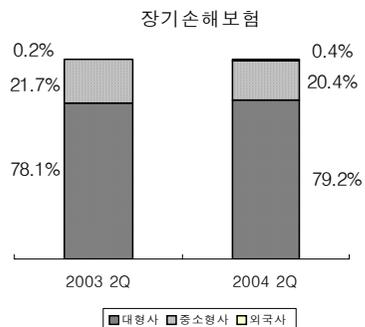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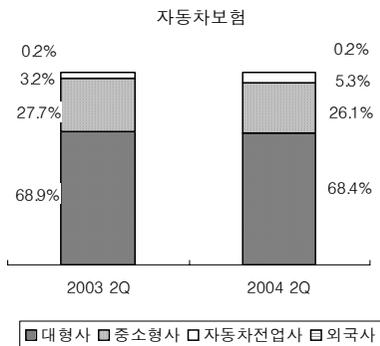
- 일반단체보험에서는 대형사(27.0%p)만 성장했을 뿐 외국사(-1.0%)와 중소형사(-0.5%)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6%p 증가

한 89.3%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였고 외국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0.3%p 2.3%p 감소한 1.2%와 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퇴직보험에서는 외국사(127.3%)의 눈에 띄는 성장이 주목되나 기존의 시장점유율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전년동기 대비 시장점유율은 0.5%p 증가한 0.8%의 시장점유율에 그친 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각각 0.7%, -45.1%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은 7.7%p, -8.2%p 증가함.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 중소형사의 축소>

- FY2004 2/4분기 자동차보험시장은 대형사가 기존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전업사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장기보험시장에서는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어 80%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자동차전업사(71.2%)의 주목할만한 성장에 힘입어 이들의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2.1%p 증가한 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중소형사(-1.62%)는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1.7%p 감소했음.
- 장기손해보험시장의 경우 중소형사(5.63%)는 저조한 성장을 한 반면 대형사(13.8%) 등은 큰 폭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중소형사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p 감소한 20.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고 대형사는 1.1%p 증가한 79.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함.
- 대형사는 브랜드 인지도, 자동차전업사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향분석팀)

보험동향 2004년 겨울호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달러화의 약세가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세계 경제 성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4분기 성장률이 4.0%에 이르러 경기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2004년 들어 전반적으로 5%대 중반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
 - 하락세를 지속하던 소비자태도지수(미시간)가 11월 들어 소폭 반등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와 ISM제조업 지수는 각각 5월, 8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방향에 대한 불안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고정 투자 증가율이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0% 전후에서 하반기 3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9%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음.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전기대비연율 %)				
	2002 간	2003 연간	2004		
			1/4	2/4	3/4
미 국	2.2	3.1	4.5	3.3	4.0
일 본	-0.3	2.7	1.5	0.3	0.1
중 국	8.0	9.1	9.8	9.6	9.1
EURO	0.9	0.6	0.6	0.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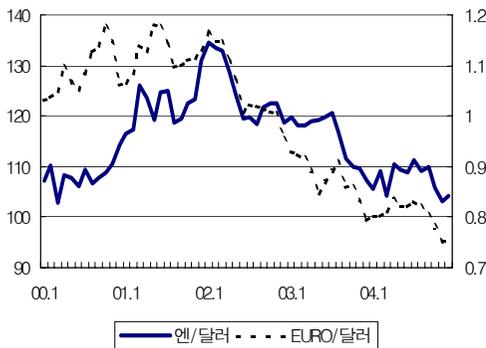
주 :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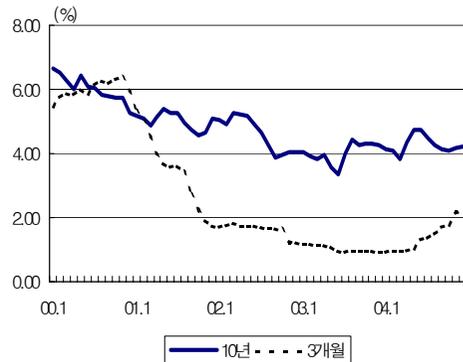
- 일본 경제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가계 소비 및 도소매 매출 등 주로 내수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면서 0.1%로 하락하였음.
 - EU의 경우 실업률이 9%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소매판매가 사실상 0% 성장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제성장률도 저조한 상태임.
- 미 연준의 5차례에 걸친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장기채는 최근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으며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에 대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미연준은 6월 이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1.0%에서 2.25%로 상향 조정함.
 - 이러한 정책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10년만기 재무성 채권수익률은 향후 경기의 불투명성을 감안하여 6월평균 4.73%에서 12월 17일에는 4.20%로 오히려 하락함.
 - 달러화는 4/4분기에 들어서면서 실물 경기 유지를 위한 미정부의 약한달러 선호와 해소되지 않는 무역수지 적자 등을 반영하여 큰 폭의 약세를 보임.
 - 엔/달러와 달러/Euro는 9월 평균 각각 110.05, 1.24(Euro/달러 0.80)에서 12월 17일에는 104.19, 1.33(Euro/달러 0.75)로 크게 변동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기간말 기준, 12월은 17일지표 사용
 자료 : 국제금융센터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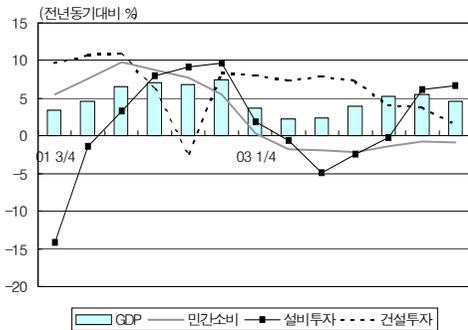
주 : 기간 평균, 12월은 17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소비와 건설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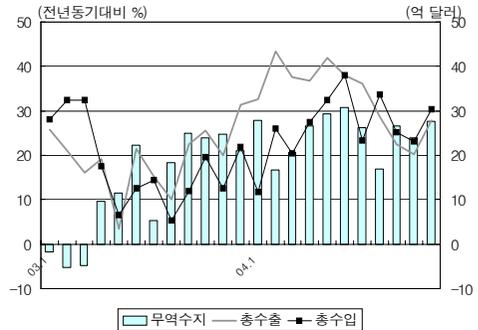
- 수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체 GDP성장률이 하락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소비 감소세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투자의 위축 등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2/4분기 5.5%에서 3/4분기 4.6%로 하락하였음.
 -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8%p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3년 2/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는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음.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건축부문은 1/4분기 6.9%에서 3/4분기에는 0.7%로 큰 폭 하락하면서 전체 건설 투자 증가율도 4.1%에서 1.5%로 하락함.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주력 품목의 수출 급증세에 따라 11월 증가율이 27.8%로 반등하면서 8월을 제외하고는 3월 이후 지속되어온 월 200억달러 이상의 수출 호황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1월 들어 5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입 증가율도 30.3%로 상승함.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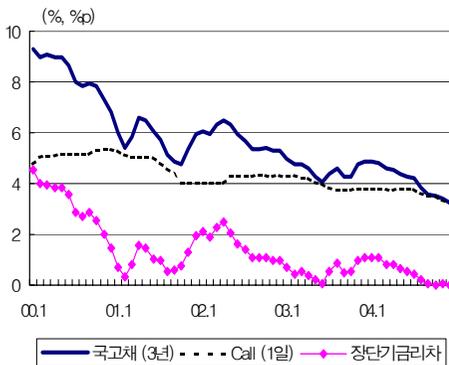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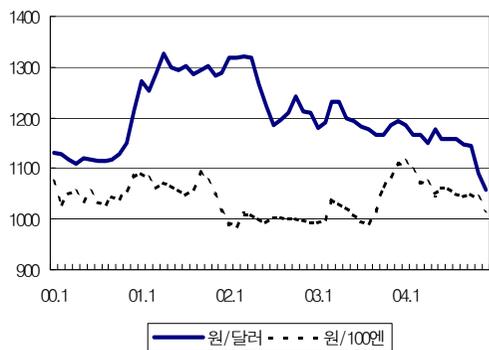
- 장단기 금리차가 소진된 상태에서 금리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의 상승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증하고 있음.
-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형성되면서 장기채 금리가 동반 하락하여 9월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소진된 상태임.
 - 콜금리 운용목표는 물가 불안 요인의 약화와 하락과 경기 부진의 지속을 이유로 11월 11일 3.5%에서 0.25%p 인하한 3.25%로 조정되었음.
 -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경우 9월 평균 3.55%에서 12월 17일에는 3.26%로 하락했으며, 따라서 같은 기간 콜금리 1일몰이 3.52%, 3.28%던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0월 평균 1144.04에서 12월 20일에는 1058.80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엔/달러의 경우 9월말 110.05에서 12월 17일에는 104.19로 하락하였으나 원/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게 나타나면서 원/엔은 2002년의 10:1 수준으로 복귀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12월은 17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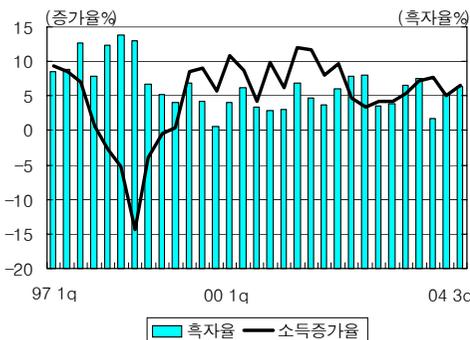
주 : 12월은 20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가계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가계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중자금은 금리 하락세를 반영하여 투신권의 채권형 상품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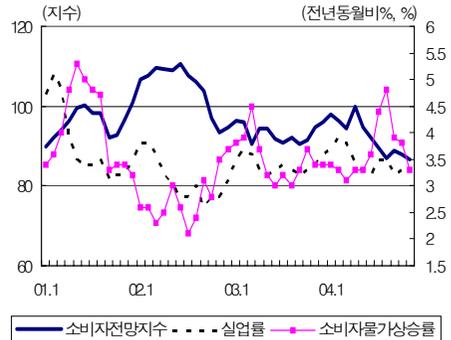
- 물가 불안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 가계소득 등에서도 추가적인 악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가계심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2004년 중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세 및 사회보장에 대한 비용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3/4분기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의 경우 2.7%의 매우 저조한 수준임.
 -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산물에서 물가압력이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3.3%(10월 3.8%)로 낮아짐.
- 소비자 전망지수는 4월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1월에는 86.6까지 낮아져 내수의 조기 회복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함.
 - 최근 소비자전망지수의 하락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내수 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1- 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자료 : 통계청

- 2004년 3/4분기(FY2004 2/4)중 시중자금은 투신권의 채권형 그리고 생명보험의 생존보험 등으로 유입되는 특징이 나타남.
 - 생명보험은 지급보험금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생존, 사망, 단체 보험의 수보 증가로 순수신 규모가 확대된 반면,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에서 모두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투신권의 경우 금리 하락세 지속에 따라 채권형 상품으로 3/4분기(FY2/4분기) 중 약 10조 4천억원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단기성 상품인 MMF에도 같은 기간 2조원을 상회하는 자금이 순수신되는 등 총 13조 7천억원의 시중 자금이 유입됨.
 - 반면, 주식형을 중심으로 한 다른 상품의 경우 자금이 유출되고 있어 투신권으로의 자금유입은 채권형, 단기성 상품에 대한 선호가 주도하고 있음.
 -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에 따른 저축성 예금의 선호도 하락과 CD 순발행의 감소 등에 따라 시중자금이 2천억원가량 이탈함.
- 내수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 채권형 자산 선호에 따른 변액보험의 수요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CY2003			CY2004		
	2/4	3/4	4/4	1/4	2/4	3/4
보 험	50,449	47,245	88,844	48,811	64,911	71,551
생명보험	34,893	34,893	74,824	37,604	48,549	54,862
손해보험	15,556	12,352	14,020	11,207	16,362	16,689
은 행	73,895	-30,594	189,814	-67,109	37,239	-1,871
일반계정	144,380	1,512	221,476	-11,707	40,699	19,734
신탁계정	-70,485	-32,106	-31,662	-55,402	-3,460	-21,605
증 권	-2,503	-6,525	5,843	-5,145	5,049	-1,427
투 신	-90,539	63,286	-178,020	170,435	-14,380	136,801
총 금	-61,400	-21,375	-38,056	-55,402	7,090	94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4 2/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노후 소득과 건강관련 보험상품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어 성장회복이 지속되고 있음.

- FY2004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수요증가와 함께 손해보험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9.7% 성장한 18조 3,729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은 개인보험 중 연금중심의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해 성장회복이 진행됨.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져 8.1%를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4	0.7	6.5	3.9	2.7	6.3	10.4
손해보험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3.4	2.6	3.6	5.6	3.8	9.0	8.1
합 계	165,167	167,527	211,837	173,136	717,668	176,933	183,729
	0.04	1.3	5.7	4.4	3.0	7.1	9.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4 2/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 4.1%, 손해보험 3.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4.0% 성장함.

- FY2004 2/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자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대비 4.0% 증가한 240조 3,034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199조 3,838억원으로 생존보험중심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분기 대비 4.1%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 성장에 따른 적립금증가와 유가증권 매각처분익 증가에 따른 개선으로 전분기 대비 3.5% 증가한 40조 9,196억원을 나타냄.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명보험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3.1	2.9	5.2	2.3	14.1	2.2	4.1
손해보험	361,677	369,919	378,639	388,229	388,229	395,180	409,196
	2.2	2.3	2.4	9.8	9.8	1.8	3.5
합계	2,054,220	2,111,131	2,211,018	2,261,844	2,261,844	2,310,389	2,403,034
	2.9	2.8	4.7	2.3	13.3	2.1	4.0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4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2조 6,6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됨
 - 개인보험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10.6% 성장하는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3.6%의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의 감소세둔화와 보험회사들의 적극적 일반단체보험 판매 노력으로 성장률은 증가세로 돌아서서 8.3% 증가한 8,769억원을 시현함.
- FY2004 2/4분기 총자산 규모는 199조 3,83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1% 증가함.
 -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영업수지가 증가(56.9%)하고 투자영업수지의 꾸준한 증가세(13.9%)로 손익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이 증가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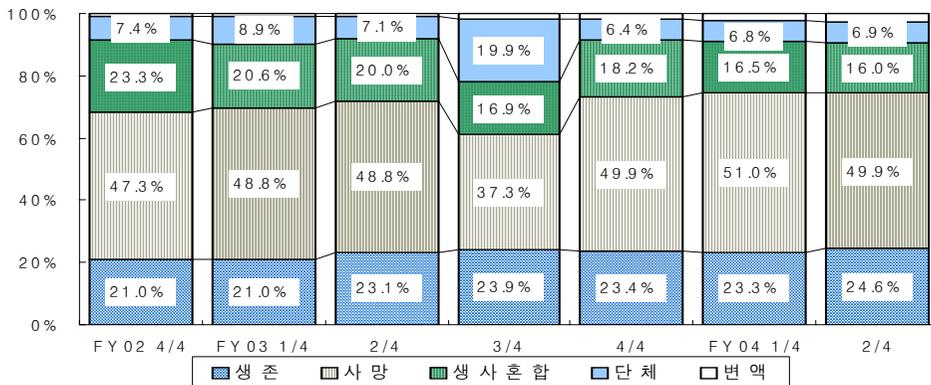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총 자 산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993,838
	3.1	2.9	5.2	2.3	14.1	2.2	4.1
수입보험료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1.4	0.7	6.5	3.9	2.7	6.3	10.4

-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4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9.9%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생존보험 24.6%, 생사혼합보험 16.0%, 단체보험 6.9%순으로 나타남.
- FY2004 2/4분기에는 생존보험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사망보험은 1/4분기에 비해 다소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CI보험 등 신보장성보험이 성장하면서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1/2을 점유하고 있음.
 - 생존보험은 생존위험 대비 니즈와 저축니즈를 반영 전년 동기 대비 17.4%(변액연금포함시, 20.6%) 증가하여 구성비가 24.6%에 육박함.
- 2/4분기중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중 무배당 보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반계정의 비중은 79.2%를 넘어섰고,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일반계좌의 41.5%에 달하면서 지속적인 금리리스크 축소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종신보험 비중은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의 22.5%로 소폭 감소했으며, 질병보험이 19.1%로 뒤따랐고, 지난해 0.4%를 차지한 변액보험 비중이 1/4분기 2.3%, 2/4분기 2.6%로 증가했음.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4 2/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1조 7,929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도 증가세로 반전되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769억원에 이룸.
 - 2/4분기 사망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하여 6조 3,199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면서 연속 2자리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사망보험중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가 1/4분기 23.2%, 2/4분기 24.9% 감소해 성장력이 감소한 반면 종신보험을 제외한 CI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1/4분기 184.6%, 2/4분기 142.0% 증가하여 높은 성장력을 보임.
 - 2/4분기 생존보험은 노후소득 마련 니즈의 증가와 방카슈랑스를 통한 연금보험판매의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여 성장세가 확대됨.
 - FY2004 2/4분기에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초회보험료)은 전분기 대비 77.1% 상승했음.
 - 그러나,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실적(초회보험료)제외시 생존보험의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5.8%의 소폭 증가에 그침.
 - 생사혼합보험은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2조 264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1/4분기 증가율 14.5%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
- 단체보험의 경우, 감소세가 완화되어 오다 2/4분기 수입보험료가 8,7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의 증가하여 증가세로 반전했음.
 - 이러한 결과는 퇴직보험의 감소세가 완화되고(-8.2%) 일반단체보험이 큰 폭으로 성장(23.4%)한 때문이며, 이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저축성 보험판매에 기인함.
- 상품별 수입보험료를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전분기에 이어 135.1%의 높은 성장을 했으며 변액연금인 176.8%, 변액종신이 97.9%, 종신보험이 14.3%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이 -0.4%의 증가율을 기록함.
 - 또한 유배당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0.0% 감소한 반면, 무배당보험이 17.5% 증가하여 1/4분기보다 보험상품의 무배당화가 심화되었음.
 - 금리연동형 보험이 전년동기 대비 30.3% 증가하고 변액보험이 189.9% 증가하

여 금리위험 완화를 위한 상품전략이 지속되고 자기 책임의 투자형 상품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존	보험료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성장률	11.8	20.0	56.8	16.0	26.5	18.3	17.4
	구성비	21.0	23.1	23.9	23.4	23.0	23.3	24.6
사망	보험료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성장률	10.5	6.3	7.0	9.7	8.3	11.2	12.9
	구성비	48.8	48.8	37.3	49.9	45.5	51.0	49.9
생사 혼합	보험료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성장률	-15.2	-14.5	-9.5	-18.7	-14.4	-14.6	-11.8
	구성비	20.6	20.0	16.9	18.2	18.8	16.5	16.0
변액 보험	보험료	920	1,136	3,210	2,356	7,621	2,785	3,293
	성장률	887	682.7	372.6	122.5	285.7	202.8	189.9
	구성비	0.8	1.0	2.1	2.0	1.5	2.3	2.6
개인 계	보험료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성장률	4.4	4.8	15.8	5.1	7.6	8.7	10.6
	구성비	91.1	92.9	80.1	93.6	88.7	93.2	93.1
단체	보험료	10,108	8,094	30,836	7,726	56,764	8,262	8,769
	성장률	-37.3	-33.1	-19.6	-10.3	-24.5	-18.3	8.3
	구성비	8.9	7.1	19.9	6.4	11.3	6.8	6.9
합계	보험료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성장률	-1.4	0.7	6.5	3.9	2.7	6.3	10.4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비중 감소세가 심화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 확대로 지난 동기 대비 3.8%p가 감소한 67.9%로 하락, 60%대의 점유율로 접어들었음.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의 선전과 TM·CM·홈쇼핑 등 새로운 판매채널과 전통채널의 확충을 통한 적극적 채널전략으로 시장점유율 상승 추세가 이어져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p, 3.4%p 상승한 14.7%, 17.4%를 차지, 특히 외국사의 성장이 두드러짐.
 - 외국사의 경우 특히 신채널(방카슈랑스, TM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펼친 회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우량 외국사의 견실한 성장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
 - 국내 중소형사는 일부를 제외하고 고르게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였음.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상위 3개사	74.2	71.7	71.5	71.0	72.0	70.1	67.9
상위 9개사	91.4	89.9	87.7	89.0	89.4	88.4	86.3
외 국 사	12.5	14.0	13.0	14.9	13.6	15.5	17.4
국내중소형사	13.3	14.3	15.5	14.2	14.4	14.4	14.7
허편달지수	0.2157	0.2015	0.1969	0.1993	0.2024	0.1935	0.1807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편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4년 9월말 알리안츠 등 11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2/4분기 당기순이익(잠정치)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모두 증가한 반면 기타 수지의 적자 폭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2조 696억원을 기록하였음.
- 보험영업수지는 전분기 추세가 이어져 생존보험을 위시한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크게 증가(56.9%)함.
- 투자영업수지는 2/4분기중 채권금리하락에 따른 매각처분익과 투자영업비용이 감소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조 3,567억원을 기록함.
- 또한, 기타 수지차의 손실도 감소하면서 총수지차가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111,565	225,632	356,191	477,213	118,151	242,546
	투자영업	28,480	57,164	84,098	118,707	33,879	63,184
	기타	3,572	8,323	5,638	4,487	868	1,451
	계	143,617	291,119	445,928	600,407	152,898	307,181
총 비 용	보험영업	93,112	185,220	281,384	378,857	88,544	179,129
	투자영업	5,001	10,121	18,513	24,140	5,882	9,617
	기타	9,188	15,850	15,437	26,332	3,260	7,076
	계	107,301	211,191	315,334	429,329	97,686	195,822
수 지 차	보험영업	18,453	40,412	74,807	98,356	29,607	63,417
	투자영업	23,479	47,043	65,585	94,567	27,997	53,567
	기타	-5,616	-7,528	-9,798	-21,845	-2,392	-5,625
	계	36,316	79,928	130,593	171,078	55,212	111,360
준비금전입	28,134	61,671	109,932	149,949	42,688	90,655	
법인세	96	187	187	5,255	8	8	
당기순이익	8,086	18,069	20,474	15,874	12,517	20,696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4 2/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9.1%p 하락한 반면, 사업비율은 사업비의 증가로 0.8%p 상승함.
- 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의 감소(24.6%)와 퇴직보험 및 저축성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의 감소(23.7%, 15.2%)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9%가 감소함.
 - 일반계정 금리연동형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26.2%, 금리확정형 퇴직보험의 지급보험금이 47.6% 감소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 생사혼합보험(82.6%), 생존보험 중 기타(23.9%)에서 크게 증가함.
 - 보유계약중심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려는 보험회사들이 계약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해약률이 8.0%로 지난 분기에 이어 축소되었으며, 신계약률도 12.7%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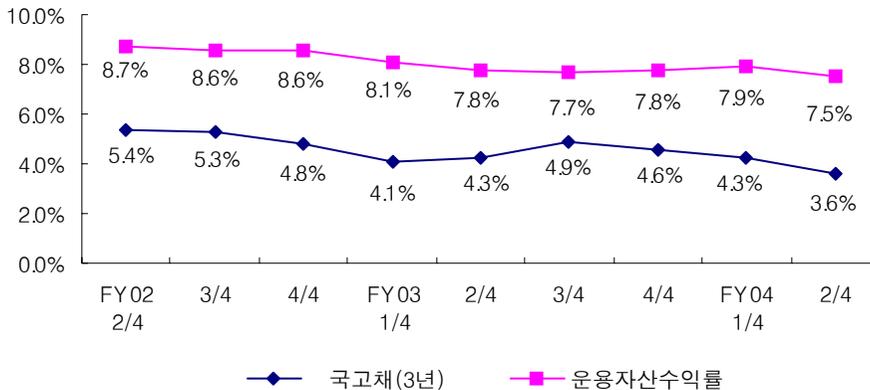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금지급률	69.4	65.8	51.7	68.7	63.0	59.9	56.7
생 존	55.9	50.7	39.4	60.5	50.4	52.8	48.9
사 망	30.0	31.6	32.8	34.3	32.2	32.6	33.8
생사혼합	142.1	136.1	108.9	121.1	126.6	123.9	112.7
개 인 계	61.4	59.0	51.0	58.2	57.2	54.5	52.0
사 업 비 율	17.5	17.8	14.8	19.0	17.1	18.0	18.6
신 계 약 률	6.8	12.4	19.3	27.5	27.5	6.3	12.7
해 약 률	4.9	9.2	12.9	16.1	16.1	4.3	8.0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상반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7.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한 수준임.
- 유가증권 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한 6.9%를 기록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기에 비해 0.4%p 감소하였고 상반기 평균 수익률은 1/4분기에 비해 4.0%p 증가함으로써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전기에 비해 각각 -0.1%p와 1.5%p 증가한 반면, 수익률은 각각 0.7%p와 -0.6%p 증가함으로써 주식은 처분이익이 실현된 반면, 채권 등은 오히려 보유를 늘린 것으로 나타남.
 - 만기보유증권은 전기에 비해 구성비에 변동이 없는 반면, 수익률은 1.0%p 증가한 것으로 기록됨.

<그림 2>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중시함에 따라 채권 등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타 운용자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임.
- FY2004 2/4분기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39.1%를 차지하는 채권 등은 그 보유 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전년 동기 대비 7.7%p 증가함.
- 이는 안정자산 선호와 더불어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보험회사들이 채권보유를 선호한 결과로 판단됨.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2	3.5	2.4	2.9	1.8	3.1	2.1	3.1	2.3	2.8
유 가 증 권	59.7	7.1	60.9	6.9	54.8	7.0	63.3	7.5	64.2	6.9
○ 단기매매증권	3.9	10.4	3.7	11.3	3.3	11.0	3.5	7.2	3.1	11.2
- 주 식	0.2	62.5	0.2	82.5	0.2	79.5	0.2	9.8	0.2	14.9
- 채권 등	1.7	11.3	1.9	9.6	1.9	14.3	1.8	8.7	1.7	13.6
- 수익증권	1.5	5.5	1.2	8.2	1.3	6.6	1.1	4.5	0.9	6.9
○ 매도가능증권	38.0	6.8	39.0	6.6	39.7	6.8	43.9	7.5	45.3	6.8
- 주 식	3.8	2.9	4.2	2.4	4.7	5.4	3.8	2.4	3.7	3.1
- 채권 등	31.4	7.6	32.2	7.3	32.3	7.2	37.6	7.8	39.1	7.2
- 수익증권	2.8	2.6	2.6	4.5	2.7	4.2	2.5	12.4	2.5	6.8
○ 민기보유증권	10.3	6.6	11.0	6.5	11.4	6.6	7.7	4.8	7.7	5.8
- 채권 등	10.3	6.6	11.0	6.5	11.4	6.6	7.7	4.8	7.7	5.8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5	9.5	0.5	6.7	0.4	6.2	0.9	45.5	0.8	6.9
대 출 채 권	27.8	10.3	27.0	10.3	26.1	10.6	25.4	9.8	24.7	10.0
부 동 산	5.6	3.3	5.3	3.3	5.2	4.1	5.0	4.9	4.8	4.2
운 용 자 산 계	87.5	7.8	88.1	7.7	88.1	7.8	87.9	7.9	88.2	7.5
비 운 용 자 산	12.5	5.1	11.9	3.6	11.9	5.7	12.1	6.9	11.8	5.9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2.3)	7.4	100.0 (91.7)	7.2	100.0 (92.1)	7.6	100.0 (92.2)	7.8	100.0 (92.4)	7.3
특 별 계 정 자 산	7.7	7.0	8.3	5.8	7.9	6.1	7.8	5.4	7.6	4.3
총 자 산	100.0	7.4	100.0	7.1	100.0	7.5	100.0	7.6	100.0	7.1
총 자 산 규 모	1,741,212		1,832,379		1,873,615		1,915,209		1,993,836	

주 :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4 2/4분기 초회보험료는 전분기에 비해 방카슈랑스, 회사직급, 중개인은 증가하고, 보험설계사, 대리점, T/M, C/M은 하락함.
 - 방카슈랑스의 초회보험료는 자산규모와 내외국사에 관계없이 증가한 반면, 회사직급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에 의해서만 증가하였고, 중개인의 초회보험료는 외국사에 의해서만 증가함.
 - 보험설계사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7.6%)의 경우 감소한 반면, 외국사(9.0%)와 중소형사(35.0%)는 증가함.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는 대형사(3.9%)의 경우 증가한 반면, 외국사(-1.6%)와 중소형사(-14.5%)는 감소함.
 - C/M의 초회보험료는 중소형사가 증가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는 감소하였고, T/M의 경우 대형사는 감소한 반면 외국사(37.3%)는 증가함
- FY2004 2/4분기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46.7%)가 가장 크며, 보험설계사(33.5%)와 회사직급(13.6%)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기에 비해 10.4%p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산규모나 내외국사에 관계없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보험설계사의 비중은 전기에 비해 오히려 13.5%p 감소했는데, 이는 대형사의 보험설계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음.
 - 반면, 대형사는 회사직급의 초회보험료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회사직급의 비중을 전기에 비해 5.5%p 증가시켰는데, 이는 기타 그룹인 외국사와 중소형사가 오히려 회사직급채널을 줄인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 기타 판매채널 비중의 변화로는 대리점 비중(-2.4%p)의 감소와 T/M 및 C/M의 감소 추세가 발견되고 있음.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회사직급	24.2	14.6	18.1	15.9	17.8	8.1	13.6
보험설계사	61.1	42.2	25.7	42.6	37.2	47.0	33.5
대 리 점	11.6	7.3	6.1	7.9	7.5	8.3	5.9
중개인	-	-	-	-	-	0.0	0.1
T/M	2.5	2.9	1.7	3.1	2.3	0.3	0.2
C/M	0.2	0.1	0.05	0.1	0.1	0.0	0.0
방카슈랑스	-	32.7	48.2	30.1	34.8	36.3	46.7
기 타	0.5	0.2	0.2	0.3	0.3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24	11,984	29,943	13,632	64,383	11,868	16,44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4 1/4분기에 비해 임직원의 수는 증가하였고, 보험설계사 수는 감소하였으며, 대리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회사직급채널 약화로 인한 회사직급 인원 감소는 대형사의 회사직급 판매채널 강화로 상쇄되어 생명보험산업 전체 임직원 수는 증가추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1년 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와 비교하여 보험설계사 수가 감소한 것은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보험설계사 판매채널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의 보험설계사 판매채널 약화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전기와 비교하여 대리점의 수가 감소한 것은 생명보험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리점 초회보험료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대형사의 대리점채널 고수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대리점채널 약화로 인한 대

리점수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만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임직원	26,356	26,231	25,616	26,172	26,201	26,237
보험설계사	145,613	144,457	144,666	143,498	145,496	144,714
생산성	-	2,125	-	2,289	-	-
대리점	7,416	7,604	7,406	7,219	7,268	7,003
생산성	-	6,034	-	5,899	-	-

주 : 각 상단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 + \text{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진익 선임연구원, 이정환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1/4분기의 성장률보다 낮아진 8.1%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 지속과 보험시장내 경쟁격화 등으로 전분기보다 훨씬 낮은 4.2%의 성장률을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부문에 대한 수요 지속과 신상품 개발 노력 등으로 12.2%의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40조 9,19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5% 성장하여 성장 폭이 다소 회복됨.
 - 보험료 적립금 증가뿐만 아니라 투자영업수지의 대폭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3.4	2.6	3.6	5.6	3.8	9.0	8.1
총자산	361,677	370,015	378,918	388,229	388,229	395,180	409,196
	2.2	2.3	2.4	9.8	9.8	1.8	3.5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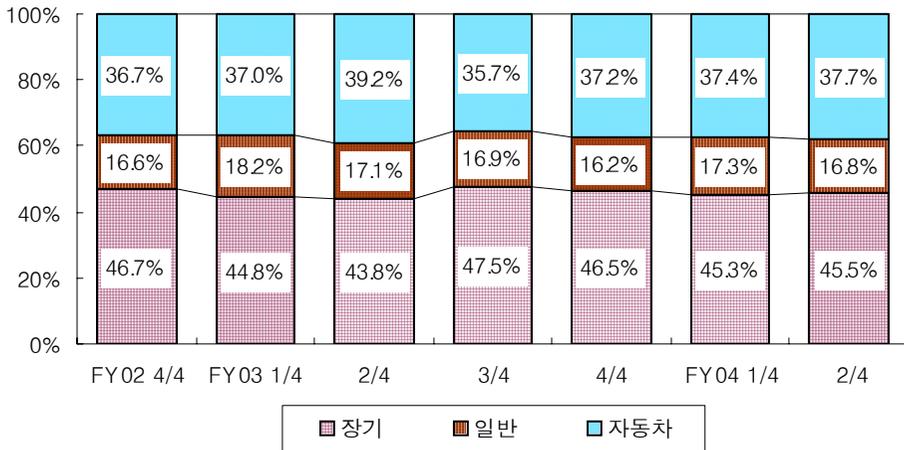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37.7%, 장기손해보험 45.5%, 일반손해보험 16.8%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3%p, 0.2%p 증가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5%p 감소하였음.
-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보증보험이 0.4%p 감소하는 등 일반손해보험은 대부분 종목에서 점유율이 축소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4 2/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1,5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하였으며, 이는 1/4분기 성장률 10.1%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이는 자동차 시장 침체와 더불어 보험시장내 경쟁격화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하락 등의 결과로 분석됨.
- 2004년 9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5%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임.

- 장기손해보험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해·질병 등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신상품개발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FY2004 2/4분기 12.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질병·상해 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16.2%의 성장률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저축성 부문에서도 22.8%의 성장률을 기록함.
- 보증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2,179억원을 나타내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는 보증보험요율 인하와 유사보증기관의 시장잠식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FY2004 2/4 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41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하였음.
 - 최근 수출 호조로 인하여 전체 해상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하보험은 22.4%, 선박보험은 26.8% 증가하였음.
- FY2004 2/4 분기 화재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2.8% 감소한 66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공장물건의 보험료 급감(-17.0%)이 지속되고 있음.
 -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기업성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가입 축소가 원수보험료 감소의 주요 원인임.
- FY2004 2/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5,0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종보험의 종목별 성장률을 보면, 종합보험 7.5%, 책임보험 8.5%, 기술보험 50.9%, 상해보험 23.6% 등으로 나타남.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825	761	881	692	3,160	763	664
	성장율	2.5	0.9	-3.1	-7.7	-1.8	-7.5	-12.8
	구성비	1.6	1.4	1.5	1.3	1.5	1.4	1.2
해 상	보험료	1,396	1,385	1,151	1,310	5,242	1,263	1,410
	성장율	-7.3	-0.2	-11.0	-7.6	-6.5	-9.5	1.8
	구성비	2.7	2.6	2.0	2.5	2.5	2.3	2.5
자동차	보험료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21,528
	성장율	-2.0	-1.2	-1.1	7.3	0.6	10.1	4.2
	구성비	37.0	39.2	35.7	37.2	37.2	37.4	37.7
보 증	보험료	2,423	2,261	2,259	2,475	9,419	2,353	2,179
	성장율	11.0	1.2	-6.4	-2.2	0.6	-2.9	-3.6
	구성비	4.7	4.3	4.0	4.7	4.4	4.2	3.8
특 종	보험료	4,546	4,454	5,140	3,933	18,073	5,083	5,088
	성장율	5.7	3.1	10.7	13.3	8.0	11.8	14.2
	구성비	8.9	8.4	9.0	7.4	8.5	9.1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7	155	163	173	628	208	214
	성장율	-4.6	27.3	11.9	13.3	11.4	51.9	38.4
	구성비	0.3	0.3	0.3	0.3	0.3	0.4	0.4
장 기	보험료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23,553
	성장율	8.1	6.5	7.2	6.5	7.1	9.2	12.2
	구성비	40.8	39.8	38.3	41.8	40.1	40.9	41.3
개 인 연 금	보험료	1,704	1,705	1,716	1,748	6,873	1,746	1,680
	성장율	2.6	1.3	0.9	0.4	1.3	2.5	-1.5
	구성비	3.3	3.2	3.0	3.3	3.2	3.1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322	388	3,488	751	4,949	686	715
	성장율	24.7	37.6	17.0	-14.6	12.4	113.2	84.3
	구성비	0.6	0.7	6.1	1.4	2.3	1.2	1.3
계	보험료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성장율	3.4	2.6	3.6	5.6	3.8	9.0	8.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관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2/4분기 예도 대형사의 장기보험 확대와 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약진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업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1%로 전년 동기 대비 1.0%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23.7%로 0.8%p 감소하였음.
 - 특히,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일반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장기보험에서는 질병 등 건강보험과 통합보험 수요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업사는 유사보증기관의 시장잠식 등에 따른 보증보험의 시장 축소로 인하여 0.4%p 감소하였고, 외국사는 신판매채널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한 1.1%으로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음.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중소형사의 시장내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상승하였음.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점유비	상위4개사	69.8	70.1	70.3	70.6	70.6	71.0	71.1
	일반사 계	94.4	94.6	94.7	94.6	94.6	94.7	94.8
	전 업 사	4.8	4.5	4.4	4.5	4.5	4.3	4.1
	외 국 사	0.8	0.8	0.9	0.9	0.9	1.0	1.1
허 핀 달 지 수		0.1555	0.1578	0.1579	0.1576	0.1576	0.1588	0.1595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영업부문에
서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6,952억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유가증권 매각처분익 등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8,855억원을 기록함.
- 그러나,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경기침체와 보험시장내 경
쟁격화로 2,003억원의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092억원에 그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총 수 익	보험영업	47,545	95,760	145,055	195,477	49,897	101,551
	투자영업	5,896	11,631	16,571	23,056	5,736	12,308
	기 타	830	1,584	5,384	6,713	1,119	2,273
	계	54,271	108,975	167,009	225,245	56,751	116,132
총 비 용	보험영업	47,263	96,480	147,472	201,558	49,719	101,688
	투자영업	1,503	3,052	5,452	8,102	2,175	3,453
	기 타	1,439	2,780	6,182	8,199	1,276	2,614
	계	50,205	102,313	159,106	217,859	53,170	107,755
수 지 차	보험영업	283	-720	-2,418	-6,081	178	-137
	투자영업	4,393	8,579	11,120	14,954	3,561	8,855
	기 타	-609	-1,196	-798	-1,487	-157	-340
	계	4,067	6,662	7,904	7,387	3,581	8,377
법 인 세		769	1,244	1,453	1,751	665	1,426
당기순이익		3,298	5,418	6,451	5,635	2,916	6,952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99.2%를 기록함.
 - 이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한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 때문임.
 - 사업비율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0%p 하락한 22.7%를 기록함.
- FY2004 2/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장기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8%p 증가한 76.6%를 기록함.
 - 장기보험은 보험금지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년 동기대비 5.0%p 증가한 85.9%를 기록함.
 - 반면, 자동차보험은 FY2003 하반기 이후 보험료인상 및 언더라이팅 강화 효과로 손해율이 감소함.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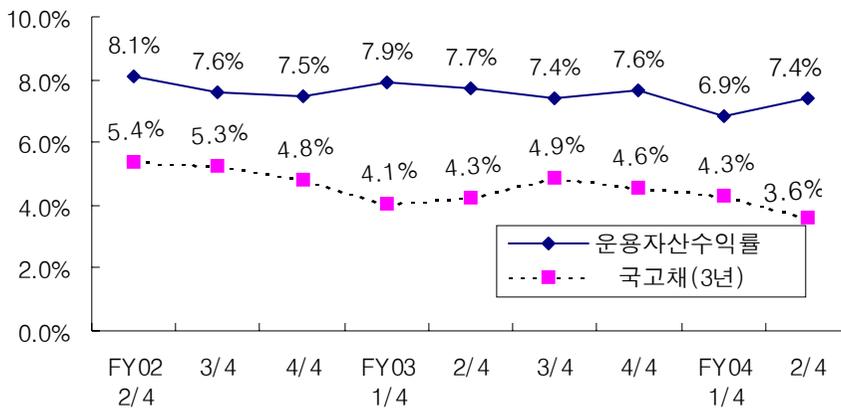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손해율	화재보험	62.7	63.9	61.6	61.7	52.7	58.8
	해상보험	45.7	53.6	57.4	57.7	61.3	51.3
	자동차보험	72.9	74.8	75.8	76.7	71.6	72.3
	보증보험	33.8	10.1	23.8	44.1	46.6	27.6
	특종보험	43.1	50.9	51.0	57.8	43.1	47.4
	해외원보험	46.5	47.7	48.5	47.5	13.2	44.3
	장기보험	80.9	80.5	81.3	82.4	85.9	86.6
	개인연금	114.6	115.6	116.1	121.8	117.9	118.4
	전 체	73.7	73.8	75.2	77.6	76.1	76.6
사업비율	24.7	25.2	24.8	24.3	21.8	22.7	
합산비율	98.4	99.0	100.1	101.9	97.9	99.2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상반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경기부진 지속과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의 지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0.3%p 감소한 7.4%를 기록함.
-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차까지 거의 소진되면서 장기금리는 3%대에 진입함.
- 그러나, 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의 차익실현으로 전분기 대비 0.8%p 상승한 8.1%의 수익률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운용수익률은 상반기 전체로 7%대를 기록함.

<그림 4>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2/4분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채권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지속에 따른 시가평가차익을 실현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임.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2/4		3/4		4/4		1/4		2/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1	4.2	5.7	3.8	4.9	4.1	5.1	3.8	4.7	3.8
유 가 증 권	54.7	8.6	54.3	8.1	54.7	8.5	54.6	7.3	54.9	8.1
○ 단기매매증권	16.9	10.9	14.3	11.0	15.1	10.5	14.7	7.3	14.4	8.3
- 주 식	0.9	71.6	1.1	85.8	0.9	103.3	0.7	21.2	0.5	32.8
- 채 권 등	10.5	10.1	8.7	9.1	8.8	8.9	9.2	7.4	8.3	8.5
- 수익증권	5.5	5.6	4.5	5.3	5.4	5.1	4.8	4.9	5.6	4.9
○ 매도가능증권	35.4	7.2	37.0	6.5	36.5	7.5	36.3	7.3	37.1	7.9
- 주 식	5.4	3.4	6.1	3.0	6.4	6.2	5.6	10.0	5.4	11.7
- 채 권 등	29.7	7.9	30.5	7.2	29.9	7.8	30.4	6.8	31.2	7.2
- 수익증권	0.2	5.2	0.3	2.9	0.3	15.2	0.3	0.9	0.4	-1.3
○ 만기보유증권	2.0	7.0	2.4	8.2	2.7	7.9	3.0	7.2	2.9	7.1
- 채 권 등	1.9	7.0	2.4	8.2	2.7	7.9	3.0	7.2	2.9	7.1
- 수익증권	-	-	-	-	-	-	-	-	-	-
○ 투자주식 ¹⁾	0.5	35.0	0.5	32.1	0.5	14.4	0.5	14.8	0.5	26.1
대 출 채 권	17.1	8.6	17.3	8.7	18.1	8.6	18.5	8.2	18.4	8.3
부 동 산	8.9	3.1	8.9	3.0	8.7	3.0	8.5	2.9	8.3	2.7
운 용 자 산 계	85.9	7.7	86.2	7.4	86.4	7.6	86.7	6.9	86.2	7.4
비 운 용 자 산	14.1	-	13.8	-	13.6	-	13.3	-	13.8	-
일반기정 자산 계	100.0	6.7	100.0	6.4	100.0	6.6	100.0	6.1	100.0	6.5
	(97.2)	-	(96.6)	-	(96.7)	-	(96.8)	-	(96.7)	-
특 별 계 정 자 산	2.8	-	3.4	-	3.3	-	3.2	-	3.3	-
총 자 산	100.0	6.5	100.0	6.2	100.0	6.4	100.0	5.9	100.0	6.3

주 :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4 2/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모집채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모집채널별 원수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의 비중은 전년동기에 거의 미미하였으나, 2/4분기에는 1.6%p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채널의 점유율은 시장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격 마케팅전략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4%p 증가한 7.0%를 기록함.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회사직급	5,019	10,190	14,833	19,323	4,788	9,627
	9.9	9.9	9.5	9.3	8.7	8.6
보험설계사	18,021	36,877	55,697	74,465	19,769	39,889
	35.3	35.7	35.6	35.7	35.9	35.8
대 리 점	26,130	52,676	78,901	105,607	27,551	55,335
	51.4	51.0	50.4	50.6	50.0	49.7
중개인	248	577	1,378	1,791	486	990
	0.5	0.6	0.9	0.9	0.9	0.9
TM	755	1515	3,153	3,901	1,061	2,361
	1.5	1.5	2.0	1.9	1.9	2.1
CM	231	460	974	1,168	273	642
	0.5	0.4	0.6	0.6	0.5	0.6
방카슈랑스	-	62	401	813	718	1,759
	-	0.1	0.3	0.4	1.3	1.6
공동인수	436	863	1,307	1,727	416	776
	0.9	0.8	0.8	0.8	0.8	0.7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4 2/4분기 대리점을 제외한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생산성(단위당 수입보험료)은 경기침체와 보험시장내 경쟁상황에 따라 하락하고 있음.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보험 판매 저조와 저가 상품 선호와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사조직 확대 등에 기인함.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임 직 원	20,569	20,768	20,800	21,207	21,204	21,489
	24,402.6	49,107.0	71,314.6	91,115.4	22,580.3	44,800.0
보험설계사	56,762	57,063	59,286	60,178	62,356	63,759
	31,748.7	64,625.6	93,945.9	123,741.4	31,702.7	62,561.5
대 리 점	50,828	51,068	50,021	48,217	48,352	47,479
	51,409.6	103,148.6	157,735.0	219,024.1	56,980.5	116,546.9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보험 감독 선진화 추진 추이

2006년부터
리스크중심의
감독기능으로
전환예정

RAAS,
RBC도입이
핵심과제

-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시행 추진>

- RAAS란 리스크감독체제의 핵심과제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제도임.

- 보험회사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와 경영진의 리스크관리·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독·검사수준을 결정하는 리스크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제1단계(2004) : RAAS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요소 확정, 평가기준 및 가중치 부여 기준 마련, 보험회사 영업형태별 특성 반영방안 마련 등
- 제2단계(2005) : RAAS 운영 실무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
 - 검사원 교육 실시,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확정,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
- 제3단계(2006) : RAAS 시행 및 전산화 추진 완료
 - 통계자료 입출력 등 RAAS 업무절차 전산화 등

□ 2004년 중 여러 부문의 리스크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가중치 부여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 동제도의 기초 인프라 기능으로서 리스크 노출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지표 마련(2004.10월)

**2004년, 리스크
노출정도
평가지표 마련**

- 주요 내용은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시장, 금리, 유동성, 보험, 신용, 운영리스크 등 6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이를 36개 리스크 요소로 세분하고 각 요소별 리스크 노출정도 측정 방법 및 요소별 노출정도를 등급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였음.

<RBC(Risk-based Capital)>

□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한 최소자본량을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단계(2004년말) :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 설정

- 현행 EU식 제도를 수정·보완하거나 미국식 RBC제도로 전환하는 등 기본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한 심층 검토

○ 제2단계(2005년) :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감독원내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세부 위험계수 산출

RBC, 2007년
시행 예정

- 제3단계(2006년) : 新 지급여력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업계 공동의 실무작업반(T/F) 운영을 통한 실증분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행안 마련 및 시범운영 추진

-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RBC)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 영국, EU,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의 적용실태 및 개선 움직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중점 실시하여 RBC의 기본 도입방향을 설정함.

- 현재는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적합한 형태의 위험·자본 연관계수 및 필요자본량 도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적용될 바젤 II의 보험권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 수준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RBC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추진.

□ 2004년 진척 사항

- 바젤 II의 보험권역 적용 가능성 연구

- 주요 연구 분야로 ① 최소 요구자본량 요건 분석, ② 감독당국의 역할 및 점검기준 마련, ③ 공시요건 마련.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지도>

-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 전환과 함께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2004년
바젤II의
보험권역
적용 가능성
연구

- 2004년 11월에는 리스크중심 경영을 위한 관리조직 운영 및 프로세스 정립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2005년에는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상황에 대한 공시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보험회사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리스크 측정기준 및 방법, 지급여력기준액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인 '보험 리스크 측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2004년 10월)하였음.
- 2004년 진척 사항
 - 보험리스크 측정에 관한 모범기준 제정(2004.10)
 - 주요 내용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급여력기준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 제시, 리스크 통합기준을 '경제적 자본' 개념으로 설명, 보험고유의 리스크인 보험가격리스크와 준비금리스크, 보험회사별로 다양하게 관리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측정기준 제시.
 - 1차, 2차 리스크관리 선진화 이행실태 점검('04. 2월, 11월)

(김진억 선임연구원)

2.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함.

<도입 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시행 중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은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 그러나, 2002년 태풍 '루사'로 큰 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이탈하면서 현재는 농협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사후에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 중임.

- 보험의 운용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

- 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로 참여하고 탄력적 요율조정, 손해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농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업효율성 제고

<국가재보험 도입 방안>

- 국가재보험 모델

-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 재보험기금 설치

국가재보험이
위험분담 계약

- 원보험자(농협), 재보험자(민영), 국가재보험이 위험분담 계약

- 위험분담 수준은 운영실적,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결정

- 거대재해 : 손해율 200%초과 ⇒ 국가재보험

- 통상재해 : 손해율 200%이하 ⇒ 농협 25%, 민영보험사 75%

- 보험요율 산출

- 시장 메카니즘(수지상등 원칙)에 따른 요율 결정

- 원칙적으로 pay-back기간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5년 적용

-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부 재정지원으로 완화

□ 손해사정 공정성 확보

○ 손해사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 및 조정제도 실시

- 조사과정에 민영재보험사의 참여 보장(손해평가요령 개정)

○ 손해사정인 전문성 및 손해사정 체계 강화

- 손해사정 인력구조 개선 → 전문인력 확대, 현지농업인 축소

▪ 보조평가인(대학생, 퇴직직원 등), 선임평가인 제도 도입

- 손해사정 관리단위 확대(조합단위→군단위), 상피제 도입

○ 중장기적 시장 확대에 대비, 손해평가의 근본적 개선안 모색

- 손해사정 자격제도 도입, 전담기관 지정 등 대안검토(연구용역, 2004년 12월말)

□ 운영비 지원방안

○ 운영비는 보험원리에 맞게 사업실적(순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사전확정 지원하며, 운영비국고지원은 90%에서 상향 조정 추진

- 국고 미지원분이 농가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실 감안

□ 품목 확대

○ 신규품목 확대는 제도개선·정착 결과에 따라 검토

○ 관건인 벼는 시범기간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도입 준비

**운영비는
사업실적에
비례하여
사전확정**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유사보험 영업활동 및 감독제도 동향

- 일반인을 대상하는 유사보험의 감독제도의 일원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감독제도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보험은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수협공제, 신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등임.

<영업활동 현황>

유사보험,
금융점포에서
주로 임직원이
판매

- 보험상품은 주로 신용사업, 체신업무가 이루어지는 금융점포에서 임직원에 의해 판매되고 있음.
- 유사보험의 설계사(임직원+설계사)는 약 16만명으로 민영생명보험의 91% 수준임.

시장점유율 급증,
12.5%('97)에서
21.3%('03)로

- 유사보험의 시장점유율은 보험계약자의 안전성 선호와 저가 보험료 니즈에 따라 1997년 12.5%에서 2003년 21.3%로 증가함.
- 특히,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에 이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함.
- 2003년 총자산 기준으로 농협공제(22조원)는 삼성(73조원), 교보(30조원), 대한(29조원)에 이어 4위, 우체국보험(21조원)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유사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조원, %)

구분		1997	2000	2003
총자산	금액	14.6	30.5	46.7
	점유율	13.8	20.1	19.9
수입 보험료	금액	7.0	17.3	13.7
	점유율	12.5	25.1	21.3

- 보험요율 낮게 적용**
- 상품개발측면에서는 보험요율을 낮게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타 사업 및 생·손보 겸영으로 범위의 경제효과, 교육세를 포함한 세제상 혜택 등으로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
 - 수입보험료 중 실제사업비의 비율이 농협공제의 경우 7.2%로 민영보험의 9.7%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저축성, 금리연동형, 일시납, 배당보험 비중 높음**
- 유사보험은 민영생명보험에 비해 저축성, 금리연동형, 일시납, 배당보험의 비중이 높음.

보험종류별 비중(2003)

(단위 : %)

구분	유사보험	민영생명보험
저축성보험	77.3	47.1
금리연동형보험	47.6	39.1
일시납보험	31.5	8.7
배당보험	93.7	21

- 민영보험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
- 유사보험은 본래 사업목적을 벗어나 가입한도를 인상하고 대도시 중심 영업을 전개하여 민영생명보험과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3천만원 이상 고액계약비중이 13.0%로 민영보험 16.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새마을금고공제의 경우는 61.0%를 차지하여 고액보장 상품에 주력하고 있음.

<감독제도 현황>

-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보험업법 적용받지 않음.**
- 유사보험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에 근거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 세부운영은 공제규정 등 내규에 의하며, 관할부처의 감독을 받음.

지급여력등
규제감독기능이
민영보험에 비해
크게 미흡

-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감독제도, 영업활동규제제도, 소비자보호제도 등이 민영보험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임.
- 재무건전성 감독, 자산운용규제, 분쟁조정 등의 측면에서 민영보험회사에 비해 충분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책임준비금 적립규정(내규)에 의거하여 향후 보험금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음.
- 외부기관의 상품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따라 부적정한 상품을 여과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자산운용규제는 법률 또는 내규로 자산운용의 방법을 명시하고, 투자상한을 설정하는 양적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계약과 관련한 계약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내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영공시제도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실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상품판매 목적상 필요에 따라 상품공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신동현 연구원)

4. 통계청, 2002년 생명표⁷⁾ 작성결과 발표

2002년 평균수명 □ 통계청이 2004년 12월에 발표한 “2002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남자 73.4세, 따라면 2002년 평균수명은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여자가
여자 80.4세 남자보다 7.1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남.

- 2001년과 비교하면 남자 0.54년, 여자 0.43년, 11년 전인 1991년에 비해 남자 5.64년, 여자 4.52년 증가함.
- 이는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임.
-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2002년은 7.1년으로 2001년에 비해 0.1년, 1997년에 비해 0.5년 감소했으며, 1985년의 8.4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 남자의 사망률 감소속도가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보임.

남녀간 평균수명

	1991	1997	2001	2002
전 체	71.72	74.39	76.53	77
남 자(A)	67.74	70.56	72.84	73.38
여 자(B)	75.92	78.12	80.01	80.44
차이(B-A)	8.18	7.56	7.17	7.06

- 2002년 현재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 14.8년, 여자는 18.7년임.
- 지난 11년(1991~2002년)동안 연령별 기대여명의 증가 추이를 보면 연령별 기대여명은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여명 증가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이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는 국민생명표이며,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3~5년 주기로 산출하는 경험생명표와는 다름.

주요연령별 기대여명 추이

연령	남 자				여 자			
	1991	1997	2002	91년대비 증가율	1991	1997	2002	91년대비 증가율
0	67.74	70.56	73.38	8.3	75.92	78.12	80.44	6
15	54.19	56.48	59.1	9.1	62.27	63.99	66.09	6.1
45	27.02	28.79	30.75	13.8	33.61	35.07	36.91	9.8
65	12.58	13.64	14.88	18.3	16.44	17.26	18.72	13.9
80	5.30	5.97	6.63	25.1	6.82	7.07	8.08	18.5

- 2002년 50세 남자 10명당 4.1명, 여자 10명당 6.4명이 80세까지 생존함.
- 특정연령에서 80세까지 생존확률의 남녀 차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듦.

현재연령에서 80세까지의 생존확률

	2002년 현재연령(→80세까지 생존확률)				
	20 세	30 세	40 세	50 세	60 세
남 자(A)	38.3	38.6	39.2	40.9	44.8
여 자(B)	62.3	62.6	63	63.9	66
차이(B-A)	24	24	23.8	23	21.2

남자는 각종 암, 여자는 순환기계통 사망확률이 높음.

-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확률을 보면, 남자는 각종 암, 여자는 순환기계통 사망확률이 높음.
- 각종 암(악성 신생물)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26.6%, 여자 14.4%임.
- 순환기계통 질환은 남자 22.5%, 여자 25.3%임.
 - 각종 암, 순환기계통 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확률은 남녀 각각 57.7%, 44.8%임.
- 특정사인 제거시 기대여명의 경우, 각종 암, 순환기계 질환 및 각종 사고사에 의한 사망원인이 제거된다면 남자 11.0년, 여자 6.4년 수명이 연장됨.

- 평균수명은 OECD국가 중 남자는 평균보다 낮고, 여자는 평균수준임.
 - 2002년 남자(73.4년)는 30개국 평균(74.7년)보다 1.3년 낮은 수준이며, 여자(80.4년)는 30개국 평균(80.6년) 수준임.

<노동생명표와 결혼생명표>

2002년도
25세 기준
노동 기대년수
남자 34.5년
여자 23.1년

- 2002년도 25세 기준 노동 기대년수는 남자는 34.5년, 여자는 23.1년임.
 - 12년 전과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노동 기대여명이 증가함
 - 이는 생존 기대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나 증가한 생존 기대여명의 대부분은 비노동 기대여명으로 나타남.

주요연령별 노동기대여명

		15	25	30	35	40	50
남 자	2002년	37.4	34.5	30.5	25.9	21.4	12.7
	1990년	37	33.9	29.6	25.1	20.7	12.3
	차이	0.4	0.6	0.9	0.8	0.7	0.4
여 자	2002년	26.7	23.1	20.2	17.7	14.8	8.6
	1990년	25.5	21.5	19.5	17.1	14.3	8.4
	차이	1.2	1.6	0.7	0.6	0.5	0.2

2000년도
30세 기준
유배우
기대년수
남자 37.3년
여자 32.2년

- 2000년도 30세 기준 유배우 기대년수는 남자는 37.3년, 여자는 32.2년임.
 - 30년전과 비교해보면, 생존 기대여명이 크게 증가하여 남녀 모두 유배우 기대여명이 증가함.

주요연령별 유배우 기대여명

		15	25	30	35	40	50
남 자	2000	38.4	38.6	37.3	34.1	30.1	22.2
	1970	33.9	34.6	32.4	28.4	24.2	16.4
	차이	4.5	4	4.9	5.7	5.9	5.8
여 자	2000	35.5	35	32.2	27.9	23.5	15
	1970	31.4	29.9	26	21.7	17.4	10.1
	차이	4.1	5.1	6.2	6.2	6.1	4.9

(신동현 연구원)

5. 금감원, 금융회사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운영

<배 경>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공시확대

□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BIS 협약에 의하면 앞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내역과 리스크 내역(profile)에 대한 공시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이 선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미흡

□ 이에 따라 금감위·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제감독기구가 요구하는 수준을 감안하여 수립한 개선방안을 작업반에서 추진할 계획임.

5개권으로 내년
3월말까지 운영

□ 금융회사의 공시범위를 확충하고 공시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융회사·금융협회 및 금감위·원 직원으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 작업반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비은행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월초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할 예정임

<개선방안>

① 금융회사 리스크의 공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예) 은행: 여신 부문별·업종별여신, 부실채권, 여신만기구조 등

② 공시신뢰도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공시내용에 대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사전점검
확대**

- 벌점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시내용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별 점 초과시 과태료 부과, 내부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
- 공시내용에 대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사전점검 확대
 - 2005년부터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사업보고서도 도표식의 한정적 기재방식에서 서술식의 포괄적 기재방식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어 공시내용의 신뢰도가 더욱 중요

**공시내용의
재정비**

③ 공시목적에 맞도록 공시내용을 재정비

- 공시채널별 공시내용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 경영통일공시 :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계열·공시내용 확대에 보다 충실한 분석 지원
 - 사업보고서: 금융리스크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를 확충
- 공시유용성이 적거나 유사·중복 공시사항은 통합하거나 제거

(김진익 선임연구원)

해외보험동향

1. 미국 동향

〈세계 보험시장, 미국의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2004년 12월에 발표된 스위스리의 「Sigma」에 의하면 상위 10개국 손해보험시장의 2002년 배상책임보험금 규모는 840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670억 달러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 이들 10개국의 840억 달러 배상책임보험금 규모는 동 국가들의 전체 손해보험시장 보험금의 1/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배상책임
보험금은 상위
10개국 전체
배상책임
보험금의
80%를 차지

미국과 기타 국가 배상책임보험시장 비교

(단위: 십억달러, %)

	배상책임 보험금 (2002)	전체 손해보험 보험금	손해보험 비중	GDP 비중	손해율 (1997-2002)
미국	66.7	318	21.0	0.64	99.7
캐나다	1.3	18.8	7.0	0.18	73.5
독일	4.2	40.8	10.0	0.21	65.1
영국	3.1	25.9	12.0	0.20	99.0
프랑스	2.8	30.6	9.0	0.19	113.2
이탈리아	2.3	22.3	10.0	0.19	102.0
스페인	0.5	12.7	4.0	0.08	na
네덜란드	0.4	14.1	3.0	0.18	na
일본	1.5	32.4	5.0	0.04	53.7
호주	0.9	6.1	15.0	0.25	124.2
10개국전체	83.8	521.8	16.0	0.37	98.2

자료 : Swiss Re, *The economic of liability losses*, Sigma No. 6/2004

미국배상책임
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 GDP의
2.2%

○ 미국의 배상책임손실은 배상책임리스크 노출에 의한 생산 외곡 현상까지 고려할 때, GDP의 2.2%에 해당한다고 보고함.

**실질
배상책임
보상은
보상금의
1/2에 미치지
못함**

- 미국의 경우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배상책임보험은 의료배상책임보험(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임직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및 하자배상책임보험(error and omission liability)으로 보고됨.
- 미국 배상책임 시스템으로 인해 승소 시 보상받은 금액은 총 소송 승소 금액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보상 금액이 실질적인 피해자보다 소송비용으로 더 많이 지급되면서 미국 배상책임 제도의 비효율성이 드러남.
 - 더욱이 미국의 배상책임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非미국계 회사들의 미국내 수출과 미국내 자사의 공장운영 및 미국인 직원 고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 노출은 전 세계로 전이되는 실정임.
- 배상책임의 종류가 나날이 새로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계리방법에 의한 보험료 산정이 힘들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최대 누적 리스크수준을 설정하거나 개별 리스크의 중첩을 고려한 보험료 계산 등이 제시됨.
 - 배상책임리스크 담보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산업계는 이들 리스크에 대한 인지 및 이해를 넓히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담보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치적 측면에서는 변호사의 소송 승소 수임료와 같은 실제 보상금액 이외의 비용에 한계를 두는 설정을 해야 하고 승소 대비 승소 비율을 재정립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자료 : Swiss Re, *The economic of liability losses*, Sigma No. 6/2004

(이정환 연구원)

2. EU 동향

<영국, 보험자산이 가계금융자산의 30% 육박>

가계순자산
연평균 4.1%
성장

□ 가계순자산은 1987~2003년 사이에 28,500억 파운드에서 54,500억 파운드로 연평균 4.1% 증가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자본시장 저조 등이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변화를 가져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가계순자산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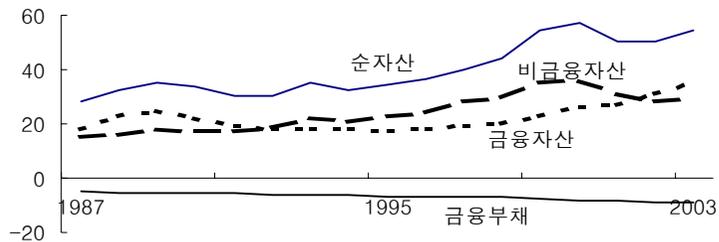
○ 그러나, 가계순자산은 1989~1992년 사이와 2000~2002년 사이의 두 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하였음.

- 이 두 기간에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가계순자산 규모가 줄었음.

○ 반면, 1995년 이후부터는 비금융자산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가계자산·부채 종류별 규모추이

(단위 : 천억 파운드, 2003년 기준가격)



○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가계순자산 규모가 축소되었음.

-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가계 금융자산은 1999년 수준이하로 떨어짐.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

- 가계부채는 1987년 이후로 연평균 4.9% 증가하고 있음.
- 주택담보 대출은 기타대출 증가율(3.6%)보다 훨씬 높은 연평균 5.5% 증가율을 보였음.

가계 금융자산중 보험이 가장 많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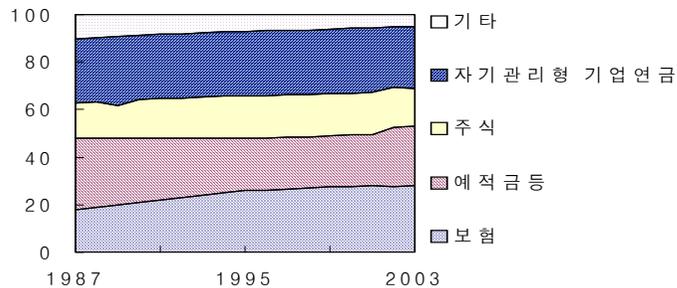
- 1987년 이후로 가계 금융자산은 종류별로 상이한 성장세를 보임.
-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전에는 금융자산은 연평균 7.2% 증가하였음.
- 1999년 이전까지는 주식보유 비율이 높은 금융자산들이 고성장을 기록하였음.
- 반면, 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상품(예금, 채권 등)에 투자한 자산들은 1987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 예금관련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7%, 채권등 관련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에 그침.

2003년,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자산 비중 30% 차지

- 보험자산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 18%에서 2003년 30%로 나타남.
- 이 기간 중 보험을 제외한 금융자산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가계 금융자산 종류별 구성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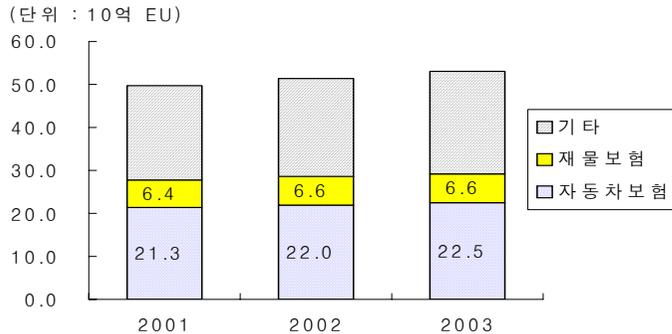
자료 : ABI, LIFE INSURANCE MONTHLY, September 2004.

<독일, 2004년 자동차 보험시장 동향>

2003년
자동차보험시장
최근 6년 이내
처음으로 흑자

- 2003년 독일손해보험 거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531억 유로를 기록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225억 유로, 개인재물보험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66억 유로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40%이며, 1994년 요율 자유화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함.

독일보험시장 보험료 규모추이



자료 : GDV(Association of German insurance companies)

- 자동차보험시장은 2003년에 최근 6년 이내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시장 손해상황의 경우 최근 평균지급보험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구건수는 최저수준임.

2004년
자동차보험시장
가격경쟁으로
손해율 악화
우려

- 2004년 독일 개인보험시장에서 대형 손보사들이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가격경쟁전략을 실시하고 있어 손해율 악화가 우려됨.
- 재보험회사들은 대형 손보사들의 가격경쟁전략만으론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함.
- 특히, 독일 최대의 손해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특정한전자계층에 대해 두 자리수의 보험료 인하를 실시하였음.

**재보험회사,
자동차보험의
비례재보험
줄이고,
초과손해액재보
험 인수에 집중**

**종합보험회사,
향후 EU의
지급여력II
적용으로
재무건전성 강화
압력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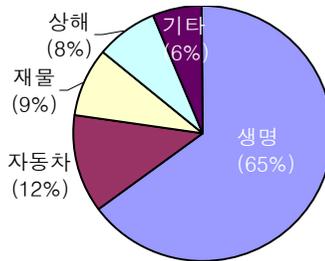
- 완화된 언더라이팅 정책은 시장점유율은 제고할 수 있으나, 손해율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재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해율 악화를 예상하여 비례재보험을 줄이고 초과손해액재보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거대 책임보험금이 자동차보험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04년 자동차에 의한 자동차도로의 교량이 파손하는 사고로 거대책임보험금 청구가 발생함.
- 독일보험회사들은 향후 EU의 지급여력II(Solvency II)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강화 압력을 받고 있음.
- 독일보험시장은 대형보험회사가 생존보를 겸업하는 종합보험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생명보험의 성과부진은 종합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정성 악화로 손보자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의 효율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프랑스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

- 프랑스 보험시장은 몇 개의 대형보험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개가 넘는 소형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003년 수입보험료는 1,637억 달러로, 생존보 구성비는 생보 65%, 손보 35%로 나타남.
- 보험상품판매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지역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전형적인 인적판매로 이루어짐.

프랑스 보험시장 구성비(2003)

(단위 : %)



자료 : Fédération Française des Sociétés d'Assurances

보험회사,
자본시장
투자수익률
악화와, 준비금
증가로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

- 프랑스 보험회사들은 재보험회사들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의 재보험회사들의 자산시장에서의 투자손실 악화와 준비금 증가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스코어재보사(Scor)는 S&P부터 신용등급이 「A」에서 「BBB+」, AM Best 「B++」, Fitch 「BB+」으로 하락했음.
- 특히,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재보험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음.

프랑스 재보험시장 참여 재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2003)

(단위 : 백만 달러)

회사 구분	2002	2003
Scor	2,270	1,420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4,030	1,400
Axa Re	1,160	1,330
PartnerRe	642	861
XL Re Europe	293	316
Mutuelle Centrale de Reassurance	199	265
SPS Reassurance	170	189
Corifrance	23	31

자료 : Standard & Poor's Global Reinsurance Highlight 2004.

프랑스
보험사고 관련
법률소송 증가

- 최근 프랑스와 EU 회원국내 보험사고 관련 법률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상해보험 소송 등에 대한 보험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미국처럼 보험금 지급의 규모가 상승하고 있음.
- 상호보험회사들은 업무영역 측면에서 은행의 방카슈랑스 확대로 위협을 받고 있음.
 - 상호회사들은 자국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EU의회에 EU회원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프랑스 보험자협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보험회사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함.
 - 스코어재보사의 최근 경영실적은 2002년 4억5,500만 유로 적자에서 2003년 3억1,400만 유로로 흑자 전환되었으며, 2004년 상반기 현재 5,81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주요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실적

(단위 : 백만 유로)

회사구분	2002	2003
Axa	949	1000
AGF	268	763
Scor	-455	314

자료 : Fédération Française des Sociétés d'Assurances

* 자료 : Reactions Volume24, Issu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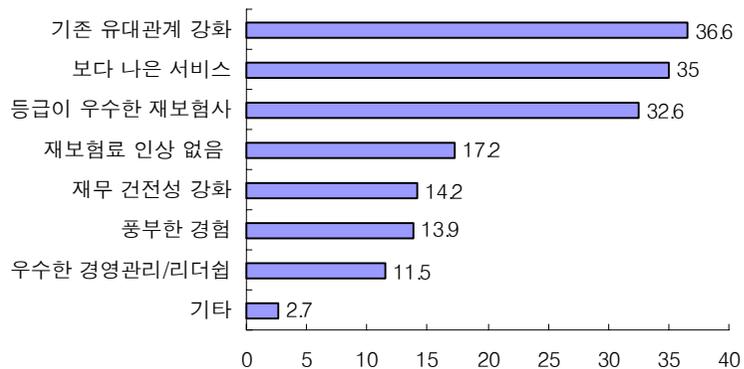
(신동현 연구원)

〈EU 재보험시장: 원수사, 재보험사 선정시 유대관계를 가장 중요시〉

재보험사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대강화

- Flaspohler Research Group의 유럽 35개국 347개 보험사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원수사는 재보험사와의 기존 유대관계 강화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 많은 재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특정 재보험사를 선정하는 기타 이유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등급이 우수하기 때문”이 각각 전체응답자의 35%와 32.6%를 차지함.

재보험료를 더 지불하면서까지 특정 재보험사를 선정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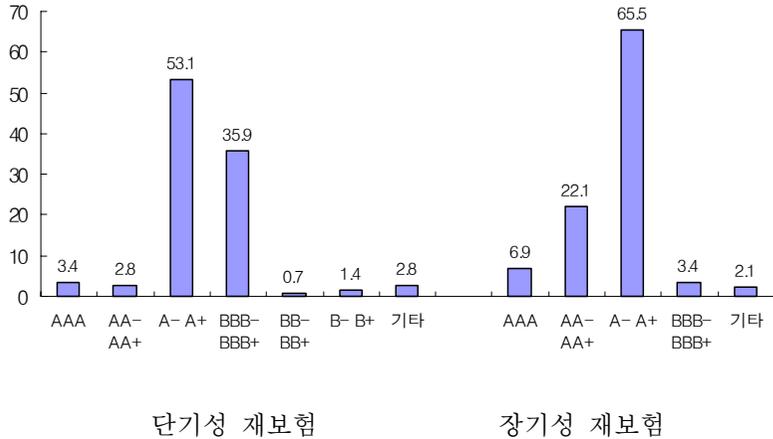


- 원수사의 재보험사 평가 요인 중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요인에 9점을 부여할 경우 기업재무가치, 급부지급 능력 및 시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6.9점을 얻어 두 번째 중요 평가 요인으로 선정 됨.
- 단기성 재보험물의 경우 원수사는 평가 기관으로부터 적어도 BBB- ~ BBB+ 등급을 얻은 재보험사를 선정했으며, 장기성 재보험의 경우 원수사는 적어도 A- ~ A+ 등급을 얻은 재보험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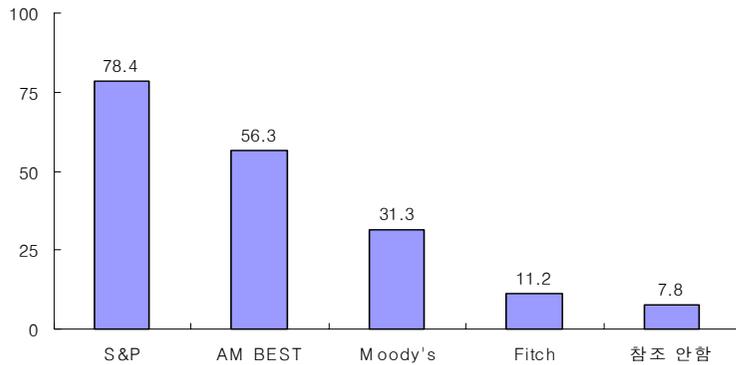
단기성
재보험은 최소
BBB-BBB+
등급
재보험사에게,

장기성
재보험은 최소
A- A+ 등급
재보험사에게,

원수사가 출재하는 재보험사 등급



□ 원수보험사의 78.4%가 S&P의 재보험사 평가 등급을 따르며, 56.3%는 AM BEST를 31.3%는 Moody's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Munich Re와
Swiss Re,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

□ Munich Re와 Swiss Re는 원수보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o 예외적으로 General Colone Re는 재무건전성 분야에서 Munich Re와 Swiss Re를 제치고 가장 좋은 등급을 얻음.

분야별 최우수 재보험사

평가등급요인	최상위 1개사	상위 5개사
언더라이팅 능력	Swiss Re(6.86)	GeneralColone Re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Partner Re Swiss Re
기업재무가치	Swiss Re(7.13)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GeneralColone Re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Swiss Re
채무건전성	GeneralColone Re (7.28)	Allianz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GeneralColone Re Munich Re Swiss Re
원수사 컨설팅	Munich Re(6.50)	Converium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partner Re Swiss Re
시장지식	Munich Re(7.13)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Partner Re Swiss Re
서비스의 시의 적절성	Munich Re(6.56)	GeneralColone Re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Partner Re Swiss Re
급부 처리 능력	Munich Re(6.89)	GeneralColone Re Hannover Re/E+S Ruck Munich Re Partner Re Swiss Re

* 자료 : Reactions, Vol.24, Issue 12, 2004. 12.

(이정환 연구원)

3. 일본동향

<일본, FY2004 상반기 손해보험회사 실적>

**일본 손보사,
2004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0.3% 증가**

- 2004년 상반기(4월~9월)의 손해보험 9개사 실적을 보면, 수입 보험료 3조 4,3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음.
- 2003년도는 상반기, 연도말 동시에 감소세를 나타내었지만 금년도 상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자동차, 자배책에서의 성장 감소를 특종, 상해보험의 성장으로 보완하고 있음.
- 각 사별로는 중기경영계획 「MS WAVE II」에서 「손해보험 일반종목 증가율 No1.」을 목표로 하는 三井住友海上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억엔 증가한 2.4%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업계 1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자동차보험,
-0.4%성장으로
감소세 지속**

- 자동차보험은 1조 6,96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하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당월 실적으로는 三井住友海上과 興亞損保 2개사, 누계 실적으로는 興亞損保 1개사만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전년도보다 감소세를 나타냄.
- 자배책보험은 9월말 누계 수입보험료 4,748억엔으로 0.9% 감소하였으며, 당월 실적은 891억엔으로 1.4% 감소하였음.
- 三井住友海上, 아이오이損保, 日新火災의 3개사만이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동경해상이 당월 227억엔, 누계 1,200억엔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음.

**화재보험 0.9%
증가**

- 화재보험은 누계 수입보험료 4,735억엔으로 0.9% 증가하였으며, 당월로는 887억엔으로 1.9% 증가함.

- 9개사 중에서 6개사가 수입보험료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각사 별로는 共榮火災가 론장기화재보험의 판매 호조로 당월 15.1%, 누계 6.2% 증가하는 등 1위를 기록하였음.

특종보험 4.8% 증가

- 특종보험의 9월말 누적 보험료 합계는 3,777억엔으로 4.8% 증가하여 전체 손해보험 종목중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상위사는 기업성 배상책임보험 등의 판매 호조로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중견사는 감소세를 나타내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당월 실적으로는 東京海上日動火災가 17.8%, 三井住友海上이 16.2%로 대폭 증가함.

일본 9개 손해보험회사 실적(2004년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엔, %)

구분	9개사당월	9개사누계	전사누계
자동차보험	265,142	1,695,950	1,789,292
성장률	-1.3	-1.4	-2.0
자배책보험	89,138	474,815	639,953
성장률	-1.4	-0.9	-1.6
화재보험	88,743	473,492	692,314
성장률	1.9	0.9	-2.4
신종보험	53,975	377,726	407,449
성장률	6.4	4.8	1.7
상해보험	40,902	272,444	763,508
성장률	5.2	5.2	-1.9
해상보험	21,858	137,098	134,454
성장률	-2.1	2.8	3.7
손해보험 전체	559,760	3,431,529	4,426,944
성장률	0.3	0.3	-1.5

- 상해보험 5.6% 증가** □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9월말 누계 2,724억엔으로 5.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누계로는 日新火災를 제외한 8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의료·암보험 등 제3분야 상품을 중심으로 실적이 신장되었음.
- 해상보험 2.8% 증가** □ 해상보험 누적 수입보험료는 1,371억엔으로 2.8% 증가하였으며, 三井住友海上이 당월 71억엔, 누계 426억엔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자료 : 保險毎日新聞, “9社合計, 0.3%増に”, 2004.10.20.

<일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도입>

**개인정보관리
대책으로
“개인정보유출배
상책임보험”
도입**

- 일본상공회의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참가하여 회원기업의 개인정보관리체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배상금이나 대응비용을 보상하는 「일본상공회의소 개인정보 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 11월 1일부터 판매 개시
- 동 제도에서는 가입기업 등에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개인정보관리리스크 평가보고서」를 제공하여 회원기업의 정보관리체제의 현상분석이나 유출방지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의한 유출 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고, 정보가 유출된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광범위한 보상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 상공회의소에서는 전국 각지의 상공회의소의 협력을 받아 회원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대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출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창안된 동 제도를 제공, 보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비용손해 등 보상** □ 보상내용
- 가입기업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업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손해배상금, 소송비용, 구상권보전비용)
 - 가입기업이 사고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법률상담비용, 사고대응비용, 광고활동비용, 컨설턴트비용, 위로금·위로품 구입비용 등 비용 손해
 -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타인의 손해 등 정보 시스템·네트워크 관련 사고에 의한 손해

- 회원사에 대한 리스크진단서비스 실시로 보험사고 예방** □ 리스크진단서비스
- 희망하는 가입기업에 대하여 리스크진단서비스를 실시,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사내체제의 평가 및 유출 방지 어드바이스를 기재한 「개인정보관리리스크평가보고서」를 제공

- 기업위험도별로 보험료 차등** □ 보험료
- 가입기업의 업종, 매출액 등에 따라 산출
 - 가입기업수에 따른 할인(단체할인), 가입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상황에 따른 할인을 적용

- 상공회의소와 보험회사간 단체 계약형태로 운영** □ 운영
- 보험계약형태 : 일본상공회의소와 보험회사간에 보험계약을 체결
 - 보험회사 : 三井住友海上(간사사), 東京海上, 日動火災, 손보 Japan, 아이오이損保, 日本興亞損保 등 11개사
 - 모집 : 인수 보험회사의 모든 대리점에서 모집 가능

* 자료 : 保險毎日新聞, “個人情報漏えいに備え”, 2004.10.27.

<일본, 공제사업에 대한 규제 관련 논란>

**공제사업,
보험업간 규제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대두**

- 일본에는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공제사업을 행하는, 소위 「무인가공제」가 존재하며,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 법인격이 아닌 임의단체, NPO법인 등의 형태를 띠고 있음.
 - 공제사업의 내용은 소액의 위로금 수준에서부터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액 급부를 다루는 것까지 다양함.
- 현재 공제사업은 구체적인 상호부조를 기초로 공공 사회생활을 영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없음.
 - 그러나, 최근 공제의 규모나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공제와 다른 형태의 공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을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최근 금융심의회금융분과위원회와 생보협회간에 공제사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심의회.
공제사업의 대상,
상품의 제약이
있을 경우
보험업보다
완화된 규제
부과 주장**

- 금융심의회측 의견
 - 공제사업의 다양성이나 제도보완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공제사업을 행정당국의 감독하에 계약자보호상 필요한 최소한의 룰을 설치하는 등 보험회사와 상이한 규제를 부과하여야 함.
 - 즉, 보험사업보다 계약대상이나 취급상품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규제,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시 보험계리인 관여, 겸업규제 및 자산운용규제, 정보공시 등 측면에서 보험회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생보협회,
공제사업에
보험업과 동일
규제 적용 주장**

- 생보협회측 의견
 - 공제사업에 대해 보험회사와 상이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험회사와 동일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공제사업자
파산시 계약자
보호상 문제
발생 우려**

- 계약자 보호상의 문제
 - 공제사업의 대상, 상품의 특정성을 근거로 보험회사와 다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로 인한 계약자 보호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특히, 사망보장, 의료보장 등의 생명보험형 상품은 계약자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이고 연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가입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업자 파산시 발생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해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가 필요**

- 경쟁조건의 공정성 확보 문제
 - 현재 공제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생명공제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일반 소비자에게는 보험, 공제가 상품으로서의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자 등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

**공제사업의
특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험업과의
구별이 곤란**

- 제도운영상의 문제
 - 금융심의회 주장대로 공제사업의 대상, 상품의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제사업과 보험업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단체 가입요건이나 기타 활동”, “보험계약 모집형태” 등에 합리적, 객관적,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며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함.

- 실제 규제적용시** o 제도도입의 의의
- 계약자보호**
- 관점에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 미미**
- 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규제 중에서 실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보험업법과 동일한 규제임.
 - 즉, 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겸업규제 및 자산운용규제가 불가결하며, 계약자의 자기책임을 위한 적정 정보개시를 위해 정보개시규제가 필요함.
 - 또한 개시정보의 정확성·적정성 확보를 위해 상품심사, 책임준비금 적립 등에 관한 보험계리사 관여, 행정당국에 의한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함.
- o 이상에서와 같이 공제사업에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상이한 규제를 도입함은 문제가 있으며, 보험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업과 함께 육성토록 함.

* 자료 : 保險毎日新聞, “無認可共濟への對應に係”る論点整理, 2004.10.7.
 保險毎日新聞, “保險會社と同様の規制を2004.10.29.

(조혜원 선임연구원)

3. 중국 및 인도 동향

〈스위스리, 중국·인도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험시장〉

중국 보험시장,
가장 크게
성장함

- 중국과 인도의 보험시장은 기타 신흥시장 중에서도 가장 놀랄만한 성장세를 실현함.
- 스위스리는 인구대비 보험수입료를 기준으로 성장잠재력을 가진 신흥 생·손보시장을 각각 10개씩 선정하였으며, 이들 시장 중 중국과 인도가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신흥 보험시장 성장률 비교

(단위 : 백만달러, %)

	수입보험료		성장률(2003)		성장률(1998-2003)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생보	손보
중국	32,442	14,468	27.2	21.6	31.6	11.5
인도	13,590	3,712	8.4	8.2	17.5	8.9
한국	41,998	17,760	-2.0	0.7	-1.2	5.3
대만	23,739	8,662	14.2	8.8	15.2	12.1
남아프리카	20,728	4,670	-15.3	6.1	4.1	4.8
브라질	6,306	8,259	21.8	-3.6	16.6	1.4

자료 : Swiss Re, *Exploiting the growth potential of emerging insurance markets*, Sigma, No. 5/2004.

중국·인도 보험
침투율 매우
낮음

- 중국과 인도 보험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보험 침투율이 전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함.

침투율 비교(2003년)

	중국	인도	한국	전세계	아시아
전체	3.3%	2.9%	10.0%	8.1%	7.5%
생보	2.3%	2.2%	7.0%	na	na
손보	1.0%	0.7%	3.0%	na	na

- 반면, 2004년 3월 중국보험시장 서베이에 의하면 중국 10대 도시의 장기생명보험 침투율은 49%로 나타남.

보험감독규정
완화 추세

□ 보험감독규정의 점진적 완화 추세는 중국과 인도보험시장의 잠재 진입자에게 호조건으로 작용함.

중국과 인도 감독규정 비교

	중국	인도
감독당국	중국보감위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인도보험감독청(India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법규제정	1995년 제정 2003.1 수정	1938년 법규를 기초하여 1999년 제정
지급여력	보유보험료/평균지급보험금 기준 지급준비금규정	가중치로 조정된 급부 기준 지급준비금 규정
외국사의 진입규정	손보: 지점설치 가능 생보: 지분율50%의 합자회사 설치 가능	지분율 26%의 합자회사 설치 가능*
외국사의 업무규정	손 보	영업 제한 및 지역적 제한이 없음
	생 보	
	2003.12 이후 모든 종류의 보험판매 가능 2004.5 이후 모든 지역내 자회사 설립 가능	
	2004년 이후 지역적 영업제한 철폐 단체 및 연금개방 예정	

* : 지분율 26%를 49%로 조정한 법규가 상정 중.

○ ‘영업행위’와 ‘보험사 간의 경쟁’에 대한 직접적 감독체제에서 지급준비금 규정을 통한 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외국보험사의 영업활동이 보다 자유스러워짐.

□ 중국과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은 전통적인 생사혼합보험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단기 저축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호조를 띄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생사혼합보험
주류,
방카슈랑스 호조

○ 한편, 소비자의 리스크 인식에 대한 감독당국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함.

○ 중국의 경우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8.8%에서 2003년 11.4%로 증가함.

중국, 최근
역마진으로
수익률 감소세

- 중국과 인도의 손해보험시장 구성은 자동차와 화재보험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자동차보험은 2002년 중국 손해보험시장의 61%를 차지하였고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38%를 차지함.
 - 중국의 경우 2002년 기업물 재물보험이 16%, 수송이 5%를 차지하였고, 배상책임보험 등은 도입단계에 있음.
 - 인도의 경우 2002년 화재보험이 20.8%를 차지하였고, 해상보험이 8.4%를 차지함.
 - 반면, 2002년 중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역마진으로 인해 수익 감소 추세가 진행됨.
 - 기존의 높은 예정이율 상품은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역마진을 낳아 손실을 가중시키며, 투자 수익률도 감소시켜 2002년 3.8%에서 2003년 3.4%로 낮아짐.
 -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12개 민영보험사 중 3개사만 적자 경영을 면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중국과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의 영업은 수익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많았으나, 보험으로 담보된 액수가 적음에 따라 양 국가의 손해보험산업의 수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03년 초에 실시된 자동차 표준보험료의 자율화로 손해율은 3% 증가하여 55%에 도달함.
 - 인도의 경우 다른 보험시장의 수익은 만족스러우나, 자동차 보험시장은 정부의 표준보험료 책정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 자료 : Swiss Re, *Exploiting the growth potential of emerging insurance markets*, Sigma No. 5/2004

(이정환 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3			CY200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2.2	2.4	3.9	5.3	5.5	4.6	
경상수지	2,426	3,758	7,661	6,146	7,035	7,098	
수 출	46,053	47,828	56,900	59,301	63,931	61,615	
수 입	41,711	42,971	49,922	52,785	55,256	54,685	
실업률	3.3	3.3	3.4	3.8	3.3	3.4	
금리	국고채(3년)	4.16	4.11	4.82	4.50	4.24	3.53
	회사채(3년)	5.46	5.05	5.58	5.30	4.84	4.03
소비자물가지수	110.5	110.8	111.7	113.4	114.2	115.6	
환율	원/달러	1,193.00	1,150.10	1,192.6	1,146.6	1,155.5	1,151.8
	엔/달러	119.74	111.79	106.99	105.84	108.69	110.9
종합주가지수	669.93	697.52	810.71	880.50	785.79	835.09	
외환보유고	131,660	141,535	155,352	163,557	167,030	174,448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CY2003			CY2004		
	2/4	3/4	4/4	1/4	2/4	3/4
보 험	50,449	47,245	88,844	48,811	64,911	71,551
생명보험	34,893	34,893	74,824	37,604	48,549	54,862
손해보험	15,556	12,352	14,020	11,207	16,362	16,689
은 행	73,895	-30,594	189,814	-67,109	37,239	-1,871
일반계정	144,380	1,512	221,476	-11,707	40,699	19,734
신탁계정	-70,485	-32,106	-31,662	-55,402	-3,460	-21,605
증 권	-2,503	-6,525	5,843	-5,145	5,049	-1,427
투 신	-90,539	63,286	-178,020	170,435	-14,380	136,801
총 금	-61,400	-21,375	-38,056	-55,402	7,090	94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 존 보 험	보험료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31,173
	성장률	11.8	20.0	56.8	16.0	26.5	18.3	17.4
	구성비	21.0	23.1	23.9	23.4	23.0	23.3	24.6
사 망 보 험	보험료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63,199
	성장률	10.5	6.3	7.0	9.7	8.3	11.2	12.9
	구성비	48.8	48.8	37.3	49.9	45.5	51.0	49.9
생사혼합 보 험	보험료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20,264
	성장률	-15.2	-14.5	-9.5	-18.7	-14.4	-14.6	-11.8
	구성비	20.6	20.0	16.9	18.2	18.8	16.5	16.0
변액보험	보험료	920	1,136	3,210	2,356	7,621	2,785	3,293
	성장률	887	682.7	372.6	122.5	285.7	202.8	189.9
	구성비	0.8	1.0	2.1	2.0	1.5	2.3	2.6
개 인 보 험계	보험료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117,929
	성장률	4.4	4.8	15.8	5.1	7.6	8.7	10.6
	구성비	91.1	92.9	80.1	93.6	88.7	93.2	93.1
단 체 보 험	보험료	10,108	8,094	30,836	7,725	56,764	8,262	8,769
	성장률	-37.3	-33.1	-19.6	-10.3	-24.5	-18.3	8.3
	구성비	8.9	7.1	19.9	6.4	11.3	6.8	6.9
전 체	보험료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126,698
	성장률	-1.4	0.7	6.5	3.9	2.7	6.3	1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보 존협	지급보험금	13,605	13,687	15,399	17,556	60,247	15,433	15,680
	증가율	18.6	12.7	22.9	6.8	14.5	13.4	14.6
	지급률	55.9	51.5	41.6	62.3	52.1	54.6	50.3
사보 망협	지급보험금	16,782	17,795	19,077	20,773	74,428	20,345	21,657
	증가율	44.3	30.2	34.7	30.7	34.4	21.2	21.7
	지급률	30.0	31.8	33.1	34.6	32.5	32.9	34.3
생사 혼합 보협	지급보험금	33,347	31,324	28,627	26,875	120,173	25,356	23,603
	증가율	53.1	40.0	16.1	-24.0	15.4	-24.0	-24.6
	지급률	142.1	136.3	109.5	122.6	127.2	126.6	116.5
변액 보협	지급보험금	70	106	206	324	706	399	404
	증가율	4886	3143	757	2382	1589	468.5	283.1
	지급률	7.6	9.3	6.4	13.7	9.3	14.3	12.3
개 인 보 협 계	지급보험금	63,805	62,911	63,310	65,528	255,554	61,534	61,344
	증가율	42.0	30.6	23.2	-3.2	20.4	-3.6	-2.5
	지급률	61.4	59.0	51.0	58.2	57.2	54.5	52.0
단 체 보 협 계	지급보험금	15,306	12,639	16,793	17,103	61,840	11,101	10,492
	증가율	-20.1	-12.5	-45.8	-1.5	-24.6	-27.5	-17.0
	지급률	151.4	156.2	54.5	221.4	108.9	134.4	119.7
전 체	지급보험금	79,111	75,550	80,103	82,631	317,394	72,635	71,836
	증가율	23.4	20.6	-2.8	-2.9	7.9	-8.2	-4.9
	지급률	69.4	65.8	51.7	68.7	63.0	59.9	56.7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생보 존협	사업비	3,098	3,269	4,187	3,564	14,118	3,377	3,623
	증가율	-8.4	-2.1	9.1	-0.6	-0.2	9.0	10.8
	사업비율	13.0	12.3	11.3	12.6	12.2	11.9	11.6
사보 망협	사업비	14,523	14,764	15,913	16,504	61,705	15,836	16,112
	증가율	3.4	-2.9	0.1	8.5	2.2	9.0	9.1
	사업비율	26.1	26.4	27.6	27.5	26.9	25.6	25.5
생사 혼협	사업비	1,712	1,739	2,188	2,009	7,647	2,078	3,176
	증가율	-14.1	-9.6	-6.0	7.0	-5.8	21.4	82.6
	사업비율	7.3	7.6	8.4	9.2	8.1	10.4	15.7
변액 보협	사업비	-	-	-	-	-	-	-
	증가율	-	-	-	-	-	-	-
	사업비율	-	-	-	-	-	-	-
개인 보험계	사업비	19,333	19,773	22,288	22,077	83,470	21,291	22,910
	증가율	-0.5	-3.4	1.0	6.8	1.0	10.1	15.9
	사업비율	18.6	18.5	18.0	19.6	18.7	18.9	19.4
단체 보험계	사업비	61.4	653	714	750	2,732	572	605
	증가율	7.3	16.4	2.2	1.9	6.4	-6.9	-7.3
	사업비율	6.1	8.1	2.3	9.7	4.8	6.9	6.9
전 체	사업비	19,947	20,426	23,002	22,827	86,202	21,863	23,516
	증가율	-0.3	-2.9	1.1	6.6	1.2	9.6	15.1
	사업비율	17.5	17.8	14.8	19.0	17.1	18.0	18.6

-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화 재	보험료	825	761	881	692	3,160	763	664
	성장률	2.5	0.9	-3.1	-7.7	-1.8	-7.5	-12.8
	구성비	1.6	1.4	1.5	1.3	1.5	1.4	1.2
해 상	보험료	1,396	1,385	1,151	1,310	5,242	1,263	1,410
	성장률	-7.3	-0.2	-11.0	-7.6	-6.5	-9.5	1.8
	구성비	2.7	2.6	2.0	2.5	2.5	2.3	2.5
자동차	보험료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21,528
	성장률	-2.0	-1.2	-1.1	7.3	0.6	10.1	4.2
	구성비	37.0	39.2	35.7	37.2	37.2	37.4	37.7
보 증	보험료	2,423	2,261	2,259	2,475	9,419	2,353	2,179
	성장률	11.0	1.2	-6.4	-2.2	0.6	-2.9	-3.6
	구성비	4.7	4.3	4.0	4.7	4.4	4.2	3.8
특 종	보험료	4,546	4,454	5,140	3,933	18,073	5,083	5,088
	성장률	5.7	3.1	10.7	13.3	8.0	11.8	14.2
	구성비	8.9	8.4	9.0	7.4	8.5	9.1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7	155	163	173	628	208	214
	성장률	-4.6	27.3	11.9	13.3	11.4	51.9	38.4
	구성비	0.3	0.3	0.3	0.3	0.3	0.4	0.4
장 기	보험료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23,553
	성장률	8.1	6.5	7.2	6.5	7.1	9.2	12.2
	구성비	40.8	39.8	38.3	41.8	40.1	40.9	41.3
개 인 연 금	보험료	1,704	1,705	1,716	1,748	6,873	1,746	1,680
	성장률	2.6	1.3	0.9	0.4	1.3	2.5	-1.5
	구성비	3.3	3.2	3.0	3.3	3.2	3.1	2.9
퇴 직 보 험	보험료	322	388	3,488	751	4,949	686	715
	성장률	24.7	37.6	17.0	-14.6	12.4	113.2	84.3
	구성비	0.6	0.7	6.1	1.4	2.3	1.2	1.3
계	보험료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57,031
	성장률	3.4	2.6	3.6	5.6	3.8	9.0	8.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2/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2.7	63.9	61.6	61.7	52.7	58.8
	사업비율	48.4	47.1	48.4	56.0	57.2	54.7
	합산비율	111.1	111.0	110.0	117.7	109.8	113.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5.7	53.6	57.4	57.7	61.3	51.3
	사업비율	35.0	30.4	34.2	36.4	34.2	31.5
	합산비율	80.7	84.0	91.6	94.1	95.5	82.8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2.9	74.8	75.8	76.7	71.6	72.3
	사업비율	29.7	30.3	30.9	31.3	30.3	31.2
	합산비율	102.7	105.1	106.7	108.0	102.0	103.5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33.8	10.1	23.8	44.1	46.6	27.6
	사업비율	5.6	7.3	7.7	10.3	6.8	16.6
	합산비율	39.4	17.4	31.5	54.4	53.4	44.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3.1	50.9	51.0	57.8	43.1	47.4
	사업비율	25.1	23.4	23.4	23.2	22.1	22.5
	합산비율	68.2	74.3	74.5	80.9	65.2	69.9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6.5	47.7	48.5	47.5	13.2	44.3
	사업비율	54.1	76.9	76.4	80.5	22.2	83.0
	합산비율	100.6	124.6	124.9	127.9	35.4	127.3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9	80.5	81.3	72.4	85.9	86.6
	사업비율	22.3	22.8	21.4	19.4	15.9	15.8
	합산비율	103.2	103.3	102.7	101.9	101.7	102.4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4.6	115.6	116.1	121.8	117.9	118.4
	사업비율	11.0	10.9	10.5	9.7	9.9	10.4
	합산비율	125.6	126.5	126.7	131.5	127.8	128.8
전 체	경과손해율	73.7	73.8	75.2	77.6	76.1	76.6
	사업비율	24.7	25.2	24.8	24.3	21.8	22.6
	합산비율	98.4	99.0	100.1	101.9	97.9	99.2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역,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혜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의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키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업창회,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04.11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계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지기(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손해보험본부 특종보험팀 2004.12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 보험통계월보 -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4년 겨울호(통권 32호)

2005년 1월 5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대화인쇄
전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